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9
4	讲义	65
5	퀴즈	89
6	토론	93
7	자료	95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 수산업 발전사>는 한국의 수산업과 발달과정을 어업법 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소유권 형성과 그 실태, 그리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 시사점을 학습할 수 있다.

02

학습목표

- (1)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기까지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학습한다.
- (2) 근대적 어업권 제도 도입 이후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식민지기수산업의 실태를 어업권 통계를 통해 학습한다.
- (3)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국 수산업의 발전 단계를 학습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의를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인 전통적 어업권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구래의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의 이행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사료를 통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조선의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어업권의 종류, 취득, 처분 등 어업권 통계로부터 당시 식민지기의 어업의 현황에 대해 실태적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
2주차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
3주차	한말(韓末)의 수산업과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
4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전통적 질서의 변화
5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변동
6주차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 주차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

2-1

조선 후기 수산업과 사료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수산업 발전사> 강좌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사료를 통해 조선 후기의 수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조선에서의 해세제도와 수세 대상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세 대상은 바로 수산업이 가능한 어장과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 후기 다양한 사료를 통해 수산자원의 소유권 체제가 우선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자원적 특징과 어장의 형태, 사용된 어구 등 이용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화 '자산어보'를 보셨습니까? 조선 시대 수산업과 관련된 사료는 정약전이 쓴 어류 백과사전인 '자산어보'의 형태가 가장 익숙합니다.

《자산어보》는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 때 천주쟁이로 모함을 받아서 흑산도로 유배된 손암 정약전이, 절해고도 흑산도에서 섬 백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바다의 우리 물고기 226종의 정보들을 4종 55류로 분류해서 3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유사한 자료로는 서유구의 전어지, 김려의 우해이어보가 있습니다.

《전어지(佃漁志)》는 조선 후기 이용후생에 전념한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육생동물, 그리고 민물고기와 바다고기를 통틀어 수집한 동물백과전서로, 전어지의 '전(佃)'은 사냥과 목축을, '어(漁)'는 어로와 양어를 가리킵니다. 그는 임진강 하구 장단 근처의 난호(蘭湖)에 살던 시절, 직접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 백과『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를 바탕으로 거기에 육생동물 정보를 함께 결합해 전어지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는 1803년 순조 3년에 김려(金鑣)가 지은 한국 최초의 어류학서(魚類學書)로 한국 남해안의 어류(魚類)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우해(牛海)란 진해(鎭海) 앞바다를 이른 말로, 진해를 우산(牛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801년 순조 1년에 가톨릭교 신봉의 혐의를 입어 진해에 유배되어 있던 2년 반 동안, 그곳 어부들과 근해(近海)에 나가 물고기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하여 그 생리(生理)·형태(形態)·습성(習性)·번식·효용 등을 연구·기록한 것입니다.

‘전어지’, ‘자산어보’, ‘우해이어보’등은 모두 백과사전 형태로 어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일부는 잡는 법, 즉 어구어법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중《전어지》를 예로 사료를 살펴보겠습니다.《전어지》는 1편 목양(牧養), 2편 어조(漁釣), 3편 어명고(魚名攷)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목양은 칠 목(牧)에 기를 양(養)으로 짐승을 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는 집안의 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세인들은 오직 유어(幼魚)를 사서 옮겨 키운다. 그 유어는 어부들이 큰 강에서 조수를 타고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인데, ...닭이나 거위의 난황을 먹이거나, 밀기울이나 볏은 콩가루를 먹여서 기르다가, 조금 크면 양어장에 넣어 키운다”로 상세하게 어린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고기잡을 어(漁), 낚시할 조(釣), 어조(漁釣), 즉 어류를 낚시하고 잡는 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청어법(捕靑魚法), 포석수어법(捕石首魚法) 등 청어, 조기 등 특정 어종을 잡는 방법, 장소,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고도어법(捕古刀魚法)은 고등어를 잡는 방법인데, “호남의 앞바다에서 산출된다. 칠월부터 10월까지 저녁마다 어부들은 해변으로 나가, 불을 사르면서 배를 타고 나간다. 한 배에 십여인이 타고 ... (중략) ... 갈고리[鉤]에서 위로 1척쯤 되는 곳에 1척 되는 강철을 매달아 떠오르지 않게 하고, 미끼는 행어(杏魚)를 쓰거나 혹 고도어육을 쓰기도 한다. ... (중략) ... 하루 저녁 잡은 물고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 (중략) ... 추자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로 어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3편 어명고(魚名攷)는 어류도감으로 어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명태의 기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산 것은 명태라 하고, 말린 것은 북어라 한다. 또한 관북에서 난다. 비늘은 없고, 척추는 담흑색이고, 배는 조금 희다, 머리는 크면서 길어 거의 몸뚱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몸뚱이는 둥글고, 창자는 불룩하면서 끝은 꺾여져 있다. … (중략) … 고기알은 두 개의 포안에 있는데 … (중략) … 아마도 우리나라의 팔도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은 오직 이 물고기가 청어와 더불어 으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물고기는 달고, 부드럽고, 독이 없어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구는데 효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더욱 중하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그 알은 명란이라 하고, 말린 것은 북고어(北藁魚)라 하는데, 본초제가에서는 기록되지 아니했다”

어획이 되는 지역, 어류의 모양과 생물학적 특징, 어류의 전국적 유통과 상품, 즉 식용으로서의 가치 등 어류의 특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외에 수산업과 관련한 사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담고 있는 여러 관찬 사료와 법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찬사료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법전으로는 『조선경국전』,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청사목』, 『경세유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지난 강의에서도 주요하게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앞서 소개한 어류도감의 자료와는 달리 당시의 어업을 산업적·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어업에 대하여 특히 해세와 진공부담의 지역별 실태를 담은 자료인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부역실총(賦役實總)』이 있으며, 어장의 사적 소유권을 실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일본 천리대학(天理大學) 소재 한국 고문서 중 어장매매문서도 중요한 사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사료 가운데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

지난 시간에는 조선 후기 수산업과 사료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의 소주제인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은 저의 연구 중 한국문화에 수록된 「영조대 수산물산과 조세 수취의 지역적 특질」을 원문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논문은 해세(海稅)의 국가적 수취와 부담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지도서』에 수록된 전국 각 지역의 물산(物産), 진공(進貢), 군세(均稅) 등 수산 관련 조세 기재사항을 상호 연계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산업의 생산과 조세부담의 정도, 나아가 국가의 수취체제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지도서』는 1757년 영조 33년부터 영조 41년간에 작성된 전국 군현의 읍지를 취합하여 중앙으로 보고된 종합 자료로서 18세기 중반 지역사회의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지도서』는 총 55책으로 감영(監營)과 수영(水營) 등을 포함한 총 313개의 관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전국 군현의 사항은 약 40여 개로서 강(疆), 방리(坊里), 도로(道路),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官職), 산천(山川), 성씨(姓氏), 풍속(風俗), 능침(陵寢), 단묘(壇廟), 공해(公廩), 제언(堤堰), 창고(倉庫), 물산(物産), 교량(橋梁), 역원(驛院), 목장(牧場), 관애(關陜), 봉수(烽燧), 누정(樓亭), 사찰(寺刹), 고적(古跡), 진보(鎭堡), 인물(人物), 한전(旱田), 진공(進貢), 조적(糶糴), 전세(田稅), 대동(大同), 군세(均稅), 봉름(俸廩), 군병(軍兵) 등입니다.

위의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지역의 자연적 환경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경계를 의미하는 강과 도로는 지역의 위치에 관한 것이고, 방리는 지역에 포함된 면과 면의 소재지, 면의 호적 정보, 예를 들어 호수, 여성과 남성의 인구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건치연혁과 군명은 지역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지역의 명칭과 위상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형승은 지역의 모양새를 담은 내용으로 예를 들어 강화도의 경우, “네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산이 송악산이며, 토지가 비옥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지는 방어를 위해 쌓은 내성, 외성, 산성에 대한 정보와 저수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의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능침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단묘는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 공해는 관이 소유한 건물이며, 고적은 예로부터 전해진 유적을 의미합니다. 사찰, 제언, 창고, 교량, 역원, 목장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애는 강화도의 경우 갑곶진 등 주로 수로와 육로의 군사 요충지, 그리고 누각을 의미하는 누정, 진영(鎭營)과 보루(堡壘)를 함께 이르는 용어인 진보 등은 군사와 관련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과 조세에 관한 것입니다. 조적은 환곡을 이르는 용어이며, 전세, 대동, 군세, 진공, 물산, 한전 등은 지역의 조세 규모와 농업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카테고리입니다.

네 번째로 기타 봉름은 관리의 봉급에 관한 정보이며, 군병은 병력의 구성과 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인물은 부윤과 유수를 지낸 사람들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저명한 인물 리스트이며, 관직(官職), 산천(山川), 성씨(姓氏), 풍속(風俗)은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존 연구는 동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지도서』는 기존의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되, 호구를 포함하는 방리, 제언, 도로, 전결,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군세를 포함하는 부세, 군병 등의 항목이 첨가되었다는 점에서 『세종실록지리지』의 형식과도 유사한 한편, 수록 내용 면에서는 지방으로부터 취합된 읍지 등의 자료를 기반하고 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항목보다 각 고을의 토산물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됩니다.

아울러 『여지도서』의 사료로서 가치는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편성에 의해 각 읍지를 종합 집계한 점에서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의 『읍지』가 사료로서 갖는 한계는 찬술년대(撰述年代)의 불확실성, 수록 정보의 근거에 대한 자료 확보의 불충분성 등으로 지적되는데, 『여지도서』는 특정 시기 중앙정부가 수합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가 명확하게 해소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점이 여지도서가 기존의 『읍지』와 『여지도서』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지도서』는 각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각 지역 자료의 수록 방식에 세세한 규칙이 결여되어, 전국적 통계 자료로서는 균질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도서』의 사료적 한계는 동시대의 다른 연관 사료를 이용하는 등, 분석 시 면밀한 해석과 대조로 보완 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지도서』는 특정 지역을 설명하는 사료로서 활용하거나, 수록 항목에 대한 연구, 항목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 등으로 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특정 분야, 즉 수산업 관련 부문을 키워드로 정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먼저 여지도서의 각 지역의 '물산'부분에 수록된 내역 중 수산 관련 부분을 통계 수치로서 그 개항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지도서의 물산부분은 기재방식을 실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도부지였던 강화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석탄(石炭), 청란석(靑蘭石) 모두 마니산에서 난다. 홍어(洪魚), 쌀새우(白蝦), 날 대합조개(生蛤), 모시조개(黃蛤), 맛살조개(土花), 굴(石花), 낙지(絡蹄), 웅어(葦魚), 소라(小螺), 송어(秀魚), 참새우(中蝦), 맛조개(竹蛤), 준치(眞魚), 해파리(海腸), 조기(石首魚), 참조기(黃石首魚), 새우(蝦), 얼룩새우(靑蝦), 산초나무의 열매(川椒), 감(柿), 바다쑥(海艾), 영지버섯(芝草), 왕골(莞草), 소금(鹽), 부들(蒲草), 농어(鱸魚), 민어(民魚), 밴댕이(蘇魚), 전어(錢魚), 붕어(鮒魚), 잉어(鯉魚), 가물치(烏鱗魚)”

이와 같이 강화도의 물산은 총 34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여지도서』의 '물산'에 수록된, 경기를 포함한 8개도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물산의 총수는 4,310종으로 이 중 수산물산은 1,938종 약 44.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물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바다에서 산출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종을 의미하며, 생·건어, 동제어 등 가공품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표는 각 지역별로 기재되어 있는 물산을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 합한 수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는 전체 물산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851종의 물산이 기재되었고, 수산물산의 경우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순으로 많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별로 전체 물산 중 수산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함경도, 충청도, 황해도 순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산의 종류는 함경도가 71종, 전라도가 61종, 황해도가 58종, 충청도와 경상도가 각각 57종으로 도별 평균 56.3종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여지도서』에 수록된 진공(進貢)항목은 물산항목과 마찬가지로 품목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시는 표로 요약됩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6개 대상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수산물산을 진공하는 것으로 기재되는 등, 수산물 진공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함경도, 전라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 순으로 수산물 진공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 중 평균 45.3%가 수산물 진공지역이었습니다.

진공된 수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함경도가 21종, 경상도가 17종으로 다양한 해산물을 납공하였으며, 경기도가 해(蟹) 꽃게, 1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가공도를 살펴보면 생(生)·건(乾)·염(鹽)·해(醃)로 구분한 진상 품목 수는 함경도가 58종, 경상도가 42종, 전라도가 34종, 강원도가 31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여지도서』에 수록된 군세항목은 전세(田稅), 결전(結錢),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해세(海稅)인 어염선곽세(魚鹽船藿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함경도가 23개 대상 지역 중 19개 지역에서 해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 순으로 해세 부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지역 중 절반가량인 51.4%가 해세 납부 지역이었습니다.

『여지도서』로부터 파악된 해세 부과액은 총 78,342.14냥으로 이 가운데 전라도가 23,927.65냥, 경상도가 20,261.65냥으로 상위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이 3,389.9냥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지도서』에 기재된 지역별 수산물 관련 물산, 진공, 해세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수산물산과 조세 수취의 지역적 특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지도서』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수산과 관련한 중앙재정으로의 조세 수취 이행에 대한 몇 가지 특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지도서』의 물산, 해세, 진공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어업의 주요 생산지가 어디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다종의 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총 어업 생산량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다종의 수산물이 기재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어업이 발달 되었다고 유추하는 것은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지도서』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산이 수록된 지역은 함경도 북청으로 35종의 수산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산물산이 20종 이상 기재된 지역은 전체 296개 지역 중 23개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인천, 안산, 강화 등 4개 지역, 충청도는 태안, 서천, 서산 등 4개 지역, 경상도는 동래 1개 지역, 강원도는 강릉, 간성 2개 지역, 함경도는 북청, 길주, 함흥 등 10개 지역, 황해도는 해주, 강령 2개 지역, 전라도와 평안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라도는 영광과 지금의 고흥인 흥양이 각각 18종, 평안도는 철산이 16종이 최대 기재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최대 해세 납부 지역은 전라도 영광으로 2,823.3냥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해세 1,000냥 이상 납부 지역은 전체 296개 지역 중 27개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남양 1개 지역, 충청도는 홍주, 비인, 서산 3개 지역, 전라도는 영암, 영광, 흥양, 부안, 옥구, 나주, 무장, 장흥, 진도, 강진, 순천 11개 지역, 경상도는 영덕, 동래, 거제, 고성, 웅천, 영일, 장기, 김해 8개 지역, 평안도는 평양 1개 지역, 황해도는 웅진, 강령 등 2개 지역으로 함경도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즉 함경도는 수산물산이 다양하게 기재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대량의 해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전라도는 그 반대의 사례입니다.

다른 사료인 「균역청사목」에서 전라도에서 세액이 높은 순을 보면, 1위 지역 고군산, 2위 지역 위도, 3위 지역 영광, 부안, 만경, 4위 지역 무장, 흥덕, 고부, 옥구, 5위 지역 광양, 순천, 낙안, 보성, 흥양, 강진, 6위 지역 장흥, 영암, 해남, 진도, 무안, 나주, 함평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해세는 약 21,838냥으로 이들 지역이 어업의 발전 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해세의 약 27%가 이들 지역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이어 수산 관련 진공 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함경도 북청으로 전체 28종의 수산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진공 품목이 10종 이상 기재된 지역은 전체 296개 지역 중 33개 지역입니다.





전라도는 강진, 영암, 광양, 해남, 장흥, 흥양, 순천, 나주, 진도, 낙안, 보성 등 11개 지역, 경상도는 고성 1개 지역, 강원도는 강릉, 통천, 고성, 삼척, 울진, 간성, 양양, 평해 등 8개 지역, 함경도는 북청, 흥원, 영흥, 덕원, 길주, 명천, 단천, 인성, 안변, 함흥, 문천, 경성, 정평 등 13개 지역으로 경기도, 충청도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전라도 11개 지역은 모두 앞서 「균역청사목」이 꼽은 주요 해세 부과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여지도서』의 물산, 해세, 진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라도 영광 등 당시 어업의 주요 생산지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은 조선왕조가 수산물의 수세 대상을 파악하는 조사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지도서』의 해세, 진공 부과지역에서 수산물산의 항목기재가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여지도서의 물산 항목이 수산물 수세 파악기능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추측의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수산물산은 4.9~16.9종이 기재되고 있는데, 수산 관련 진공물품이 부과되는 지역은 수산물산이 8.76~19.5종, 수산 관련 진공 물품이 부과되지 않은 지역은 수산물산이 0.26~9.5종으로 확인됩니다.

즉 수산물 진공 지역은 수산 관련 진공을 부여받지 않은 지역에 비해 수산물산의 평균 개수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해세에 대한 기재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해세 납부 지역은 진공이 8.5~19.2종, 해세 납부 실적이 없는 지역은 진공이 0.4~6.3종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어염선세가 자세하게 기록된 전라도의 사례를 보면, 광·해의·태전에 대한 해세납부와 해당 물산 항목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미역, 김 등 정착성이 강한 해조류가 자생하는 특정 해역에는 일찍이 소유권 제도가 발달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광전(藁田), 태전(苔田)으로 지칭될 만큼 토지와 유사한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빈번한 매매실태가 여러 문기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광·해의·태가 자생하는 특정 해역에 대해 부과하는 광전세, 태전세, 해의전세는 전라도 8개 지역에서 총 758.5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물산 항목에는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 기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시는 표에서 확인되듯이, 영암에서는 곽전(藿田), 태전(苔田), 해의전세전(海衣田稅錢)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산물산으로 곽, 감태, 해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흥양은 곽전과 해의전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산물산으로 곽, 해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주, 장흥, 진도, 강진, 해남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암은 수산물 진상 품목 14건 중 12건이 물산 항목에 동시 기재되었으나, 다시마, 해삼은 물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마의 경우 영암에서의 곽세 납부기록이 있는 것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영암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즉, 다시마, 해삼 품목은 물산 항목에서 그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례로는 강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강진은 곽세로 115냥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강진의 전체 해세 1,497냥의 약 7.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지도서』강진의 물산 조항에는 동일지역 진상 품목인 곽(藿)인 조곽, 분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물산 기재의 누락 여부는 『여지도서』전후에 편찬된 지리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 가능합니다. 표는 영암과 강진을 대상으로 『여지도서』보다 약 200여 년 앞서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이후에 쓰여진 『대동지지』에 지열별로 기재된 토산 조항 중 수산 품목을 비교한 것입니다.

강진의 진공 품목 중 수산물산으로 기재되지 않은 복(鰵), 미곽(藿), 수어(秀魚), 홍합(紅蛤), 다시마(多士麻) 5개 품목 중 다시마를 제외한 4개 품목이 『신증동국여지승람』혹은 『대동지지』의 토산조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기별로 전국적인 지리지 작성 시 목적과 원시 이용자료에 따라 사료의 토산 또는 물산 조항의 기재사항에 일부 차이가 발생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리지에서 토산조항 부문이 『여지도서』에서 물산과 진공조항 두 부문으로 분산 기록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재 규칙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품목의 누락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에 국한되지만, 물산, 진공, 해세 항목 간에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는 곳도 발견됩니다. 보시는 표에서 『여지도서』에 수산물산과 진공 항목은 기재되어 있으나, 해세가 미부과된 지역이 다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수산물산이 1~3종, 진공 품목도 1~2종에 불과합니다.



어류도 지역별로 동일한 특정 어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은구어(銀口魚), 강원도는 여항어(餘項魚), 충청도는 석수어(石首魚), 수어(秀魚) 등으로 석수어를 제외하면 내수면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재정구조 중 특히 공물, 진상은 의제적(擬制的)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지도서』의 기재사항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지역에서 공물, 진상을 부과하도록 하되, 지역별로 흔히 생산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을 명시·분정한 부문은 진상 품목 부과에 나타난 일종의 명분론적 형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산물산과 진공이 기재되지 않고 있지만, 해세 부과지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도의 단양, 제천, 옥천, 연기 등이 그 사례이나, 이들 지역의 해세 부과액은 0.5~17냥으로 그 부과액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동일한 자료에서 함경도의 경우 소이선(小耳船) 1척에 대해 최소 1냥을 부과하고 있는데, 충청도 단양 등에 해세가 0.5냥이 부과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 부과되는 해세의 규모가 다른 지역의 소규모 선박 1척에 부과하는 액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여러 연구에서 조선왕조 재정 운영에서 보이는 한 가지 특징으로 제시된 바 있는 형식주의의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부 물산, 진공, 해세 간에 불균질한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지도서』의 물산 항목은 중앙에서의 수취 가능한 수산물의 수세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지도서』의 수세 기록에 있어 0.5냥의 소규모 부과 등 형식주의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지도서』에 수록된 수산물의 진상 품목을 통해 조선 시대 수산물의 가공 정도와 시장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공을 요약하면 왕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경기도, 평안도는 진공 수산물 이 해(蟹), 민어(民魚), 석어(石魚), 하란(蝦卵) 등 1~3종으로 가공에 대한 부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왕도로부터 떨어진 지역의 진공 품목의 종류는 충청도 15종, 황해도 21종, 강원도 31종, 전라도 34종, 경상도 41종, 함경도 58종 순으로 많아지는데, 품목별 평균 가공제품 또한 충청도 1.5종, 황해도 1.9종, 강원도 2.1종, 전라도 3.1종, 경상도 2.4종, 함경도 2.8종으로 중앙에서부터 원거리일수록 수산물의 가공이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더해서 지역의 진상 품목에는 기재되었지만 물산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곳은, 지역의 생산보다는 시장 유통에 의존하여 진상 품목이 조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의 진상 품목 중 물산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품목 기준 96건으로 살아 있는 전복인 생복 5회, 해삼 9회, 홍합 7회, 건대하 7회, 굴비 6회, 김의 일종인 소해의 6회, 말린 송어인 건수어 4회 등입니다. 해삼, 홍합, 생복은 바닷속에서 잠수를 통해 전문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물품으로 포작간(鮑作干)과 같은 직역을 부여받은 자 또는 촌락의 협업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품목입니다.

생복(生鰓)은 일찍부터 진귀한 식재료로 인식된 품목으로 진상을 목적으로 해당 품목의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복, 홍합, 해삼 등 3개 수산물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조항에 수록된 바 있으나, 유독 『여지도서』상에서는 물산 조항에서 제외되고 진공 조항에만 포함된 사례가 발견됩니다. 강진, 해남, 순천 등 3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면, 첫째, 실제로 해당 품목이 당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진공 품목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포함된 경우, 둘째, 해당 물품의 진공 조달을 위한 유통 루트가 형성된 경우, 마지막으로 단순 기재 누락의 가능성입니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각 사에 소장되어 있던 공물안에 기반을 두고 토산 조항을 작성한 자료이므로 첫 번째 가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진, 해남, 순천 등은 잘 알려진 임해 지역으로, 주변에 다수의 도서가 분포하는 등 해당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두 번째 가설인 해당 물품이 시장에서 공물 관련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문이 『여지도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여지도서』상 전라도의 전복 관련 진상 품목은 살아있는 전복인 생복, 통째로 말린 전복, 날것의 전복을 사과 깍듯 얇고 짧게 저며 말린 건인복, 길게 저며 말린 장인복, 찢상태의 숙복, 전복을 찢어 건조한 건숙복, 발효 형태로 만든 생복식해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 홍합, 해삼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와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는 부문으로 본 강의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이외에도 건대하, 굴비, 건수어 등의 물품은 수산물의 장기 유통이 용이하게 가공된 물품으로서, 당시 진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비용으로 거래되는 등 상당한 시장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조선 후기 장시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임원경제지』에도 전체 장시 1,051기 가운데 취급 품목이 기재된 316기 중에서 어·염을 포함한 장시는 247기로 약 78.2%가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점도 18~19세기 조선에 있어 수산물의 시장화를 뒷받침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번 강의의 주제인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의 소주제로 조선 후기 어업에 대한 조세 수취를 제도가 아닌 생산 실태를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지도서』의 물산 항목을 통해 지역별 수산 물산 개수와 주요 수산물 종류를 제시하였고, 진공 품목, 균세 부과 등 다른 기재사항과 교차 비교를 하였습니다. 최대 수산물산 및 진공의 기재지역은 함경도의 북청으로 수산물산이 35종, 진공 물품이 28종이었습니다. 최대 해세 부과지역은 전라도 영광으로 해세액은 2,823.3냥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여지도서』 수산물산과 해세, 진공 항목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균세 납부 실적으로부터 기재 누락이 유추되거나 물산, 진공, 해세 항목 간 정합적이지 못한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도를 기준으로 진공 물품이 대체로 수산물산에 포함되고, 도의 진공을 책임지는 감영의 진공 물품이 각 지역에서 진공 물품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여지도서』에 기재된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지도서』의 물산 항목은 중앙에서 각 지역의 조세 수취 물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여지도서』의 수산물 진상품을 통해 수산물의 가공 정도가 상당 수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염제품, 건제품, 해(醃)제품, 동(凍)제품 등 유통에 용이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진공 품목의 종류와 품목별 가공제품은 함경도 북청과 같이 중앙으로부터 원거리일수록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장매매 문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어장매매 문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

지난 시간에는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장매매 문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수산업에 대하여 당시 어장의 사적소유와 매매가 있었는지 사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방식이 어떠한 형태였는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어장의 사점과 매매 사례는 여러 고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장매매 시 작성된 문기로서 소개된 것은 경기도 수원과 황해도 웅진군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어장매매 문기와 더불어 전라북도 흥덕현 심원면에 소재한 어전의 매매 문기, 황해도 웅진군 송당리 전포전(箭浦箭), 작당전(鵲堂箭), 오두전(烏頭箭), 전포청어전(箭浦靑魚箭) 매매 문기 등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자료를 발굴하여 당시의 어장매매 실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사용된 어장매매 관련 고문서는 보시는 표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문기는 경기도 수원 어장매매 사례로, 1786년에 작성된 어장매매 문기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乾隆 五十一年丙午十一月 二十五日 李海南宅奴莫金前明文

건륭 51년(1786) 병오 11월 25일 이해남택 노 막쇠 앞 명문

右明文事段 上典宅切有用處 水原佳士串面 鷄頭山下浦邊 陳江岩網場 形止段 鹽岩周 四千五百餘步內 一授二授兩庫 合二百五機是遺 四標段 東距大同岩五里 南西距猪岩五里 西距黃岩二十里 北距鷄頭峰 五里庫乙 價折錢文 壹百伍拾兩 依數 交易捧上是遺

이 명문을 하는 일은 상전택이 긴히 쓸 곳이 있어 수원 가사곶면 계두산 아래 포변 진강암 망장을, 형지는 염암 둘레 4500여보 내의 일수와 이수 두 곳 합 205기이고, 사표는 동으로 대동암에서 5리, 남으로 저암에서 5리, 서로 황암에서 20리, 북으로 계두봉에서 5리의 곳을, 가격을 동전 150냥으로 정하여 수대로 받고,

立旨一張 上典主牌子導良 右人前 永永放賣成文以給爲去乎 日後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입지 1장을 상전주의 위임장과 더불어 우인에게 영영방매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주니, 일후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網基主 李生員宅 金夢(左手寸) 망기주 이생원택 금몽(좌수촌)

証人 私奴 占尙(左手寸) 증인 사노 점상(좌수촌)

私奴 卜善(左手寸) 사노 복선(좌수촌)

私奴 命山(左手寸) 사노 명산(좌수촌)

筆執 良人 李燁(手決) 필집 양인 이엽(수결)

이 문기는 균역법 시행 후인 1786년에 작성된 어장매매 문기입니다. 어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으로, 현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의 한 어장이 매매될 때 작성된 것입니다. 매매 물품은 어망이 설치된 약 250m에 달하는 크기의 어장으로 동전 150냥, 쌀로 30섬에 해당하는 가치에 팔렸습니다.

본 문서는 특히 어장의 위치를 동서남북 사방경계로서 명시하고 있는데, 대동암(大同岩), 저암(猪岩), 황암(黃岩), 계두봉(鷄頭奉) 등 내륙의 지명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획 도구인 어망과 함께 구획된 바다를 어장으로 칭하고 토지와 같은 형식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부에서 발급된 서류인 동 어장의 입안(立案)자료도 존재합니다. 입안은 조선 시대 관부(官府)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양도·결송(決訟)·입후(立後) 등의 사실을 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1786년 작성된 입안에는 어장 위치, 크기 등에 대한 어장매매 문기와 동일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이것이 1762년에도 동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어전의 주인은 이생원택 노(奴) 세위(世位)입니다. 조선 후기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원소유자가 양반가이더라도, 매매 당사자로 원소유주의 노비가 거래 관행상 계약자로 형식적으로 표기되는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적어도 1762년~1786년간 동 어장이 이생원택에 귀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흥덕현 어전매매 사례입니다. 이 문기는 1826년, 1828년, 1839년에 작성된 어전(漁箭) 매매 문기입니다. 총 3장의 문서로 다음은 가장 나중 시기인 1839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한 원문과 번역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道光十九年 己亥 六月 日 李永仲 前明文

도광19년(1839년) 기해 6월 일 이영중 앞 명문

右明文事段 右人前 買得是在 心元面 蘭勿後洋吉嚴滄伏在 漁箭一庫看水船一隻抹五結 折價錢文一百五十兩 (本文記三丈并以新文記) 還爲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弊 以此告官卞正事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매득한 심원면 난물 뒷바다 길암창에 있는 어전 1곳, 간수선 1척, 말 5결을 동전 1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본 문기 3장을 신문기와 아울러) 다시 영영방매하니, 일후에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이것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明文主 陳寬性 (手決) 명문주 진관성 수결

筆證 陳乃叟 (手決) 필증 진내수 수결

본 어전매매 문기 3건은 전라도 흥덕현 심원면 난호리 길암창에 소재한 어전의 1826년~1839년간 매매 기록입니다. 1826년 현덕일이 이정각에게, 1828년 이정각이 진관성에게, 1839년 진관성이 이영중에게 어전의 권리를 이전하였습니다.

매매 대상은 어전과 더불어 간수선 1척, 말목(抹木)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함께 매매되는 간수선은 어족의 모임을 보는 배로 주로 어전에서 이용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말목은 어망을 지지하는 나무말뚝으로 일종의 어구입니다. 말(抹)은 어전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목재 기둥을 의미합니다.

기둥을 통해 어전의 면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結)이 바로 이 어전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조선 시대 결은 농토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나, 생산성이 반영된 개념으로 절대 면적이 아닌 상대 면적입니다. 1902년부터는 1결=1만㎡=1ha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동 어장의 크기 5결 기준 약 15,000평으로 환산됩니다.

어전의 가격은 1826년과 1828년에는 동일하게 230냥이었으나, 1839년에는 오히려 130냥으로 그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1826년과 1828년의 매매 사유는 “채전허다고부득이(賃錢許多故不得已)”로 빚진 돈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어전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울 때 환금성이 있는 재산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26년과 1828년 자료에는“이 어전을 스스로 매득하여 살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전주(漁箭主)가 어장에 대해 어구를 설치하는 등의 어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문기에는“본 문기 3장을 신문기와 아울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 어전과 관련하여 작성된 3건의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있는 점연(粘連) 문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어장의 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어장이 토지와 같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영중이 동 어전을 매득하는 문서에는 다른 문서에는 없는 문구인 ‘환위(還爲)’, 즉 이전에 샀던 것을 다시 되돌려 판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 문서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금번 매매 이전에 이영중 혹은 이영중 가(家)에서 이 어장을 소유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다음에 살펴보는 황해도 웅진군의 어장은 매도자가 이듬해에 다시 그 어장을 매수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해도 웅진군 어전 매매 사례입니다. 황해도 웅진군의 문기는 총 12건에 달하는데, 어장의 명칭과 더불어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문기는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어전의 명칭은 전포전(箭浦箭), 작당전(鵲堂箭), 오두전(烏頭箭), 전포청어전(箭浦靑魚箭)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들이 동일한 어장인지는 문서를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림은 황해도 웅진군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송당리 전포전(箭浦箭)

乾隆三十六年辛卯四月二十七日 崔光規前明文

1771년 건륭36년 신묘 4월 27일 최광규 앞 명문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箭浦箭 箭杖木二百五十介 眞網十四幅 網竹三介 約是三介 幕杖水望船一隻 定伊船一隻等物折半及本文記六章 官斜三章 和會文記一章 右人前價折錢文四百兩 依數交易捧上 永遠放賣爲乎矣 某同生子孫中 日後若有雜談 則此文告官卞正者

이와 같이 명문을 하는 것은 직접 매득한 웅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전포전의 전장목 250개, 진망 14폭, 망죽 3개, 약시3개, 막장수망선 1척, 정이선 1척 등의 절반 및 본문기 6장, 관의 빗기(官斜) 3장, 화회문기 1장을 이 사람에게 가격을 동전 4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 내로 교역하여 받고 영원히 방매하되, 어느 동생 자손 중에서,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을 경우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箭主 韓廷佑 (手決) 전주 한정우 (수결)
證人 韓臥孫 (手決) 증인 한와손 (수결)
筆執幼學 朴處演 (手決) 필집유학 박처연 (수결)

본 어전매매 문기는 1771년으로 가장 앞선 시기에 작성된 사료입니다. 황해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전포전이 그 대상으로 매매에는 어획 도구로서 지지대(網竹, 箭杖木), 어망,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제들끼리의 재산을 나눈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회문기는 사후에 형제간에 재산을 나누는 문서로, 부모가 직접 작성한 상속문서와는 구분됩니다.

즉 이 어전은 1771년 이전 시기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전을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어전은 조선 후기 민인들 사이에서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빚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어업에 대한 소유권이 토지의 연장선상에서 재산권적 가치를 관으로부터 공인받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송당리 작당전(鵲堂箭)

道光七年丁亥六月初四日 韓震奎前明文

1827년 도광7년 정해 6월 초4일 한진규 앞 명문

右明文事段 祖先傳來是在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 鵲堂箭三分二衿中折半衿 價折錢文柒百兩 依數奉上是遣 杖網丁耳船 水望船及柴浦雜魚箭半半衿 并以右人前 永遠放賣 而本文段在於都文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若有雜言 以此告官卞正事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웅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작당전 3분의 2 깃 중 절반 깃을 동전 7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장망정이선, 수망선 및 시포잡어전 반반깃을 아울러 이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고, 본 문기는 도문기에 들어 있어서 허급할 수 없으므로, 일후 동생 자손 중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것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箭基主 金良鎰 (手決) 전기주 김량일 (手決)
從祖 興哲 (手決) 종조 흥철 (手決)
證筆 孫繼祖 (手決) 증필 손계조 (手決)





이 문기는 1827년에 작성된 문기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작당전(鵲堂箭)의 일부 즉 1/3에 해당되는 지분과 어선을 매매하는 문서입니다. 앞의 송당리 전포전과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전이고 대상입니다.

이전부터 내려온 피상속인 전원 또는 각 개인의 재산 상속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점련(粘連)한 도문기(都文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어전을 여러 자녀에게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지역은 어전과 어선의 1/3의 매매가가 700냥으로 동시대에 경기도, 전라도 등지에서 존재하고 있던 타 어전과 비교해 경제적 가치가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당리 오두전(烏頭箭)

道光十六年丙申十一月初九日 張吉甲前明文

1836년 도광16년 병신 11월 초9일 장길갑 앞 명문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 烏頭箭三分一衿 價折錢文肆百伍拾兩 依數捧是遣 杖網定耳船二隻 水望船一隻及柴浦箭三分一衿 舊文記陸張 并以右人前 永遠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雜談則持此卞正者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스스로 매득한 웅진 용연면 송당리에 있는 오두전 3분의1 깃을 동전 4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받고, 장망정이선 2척, 수망선 1척 및 시포전 3분의 1깃을 구문기 6장과 아울러 이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니, 일후에 만약 자손 중에서 잡담이 있을 경우 이것을 가지고 바로잡을 것.

自筆箭主 吳鼎允 (手決) 자필 전주 오정운

이 문기는 1832년~1836년에 만들어진 어전매매 문기입니다. 총 5장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본 문기에 앞서 작성된 문기 5건은 매수인, 매도인, 매매지분, 매매가격만 상이하 며, 이외의 내용과 문서의 형식이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표로 정리됩니다. 해당 어장은 1832, 1833년 4건, 1836년 1843년 1건 등 총 5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832년 5월, 오정윤이 이종표와 원익영에게 1/6의 지분을 동전 각각 330냥에 매매하며, 같은 해 11월 이종표가 원익영에게 다시 1/6의 지분을 동전 400냥에 매매합니다. 결국 오정윤의 어전 1/3 지분은 원익영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표는 어전 1/6 지분을 원익영에게 매매하면서 70냥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833년 다시 원익영은 보유한 어전 1/3 지분을 본래 주인인 오정윤에게 730냥에 매매합니다. 결국 오정윤은 소유하였던 어전 1/3 지분을 1832년 5월에 660냥에 팔아, 1833년 10월에 다시 730냥에 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836년 오정윤은 장길갑에게 어전 1/3 지분을 450냥에 매매합니다. 3년 동안 어전의 가격은 730냥에서 450냥으로 무려 280냥이나 하락하여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1833년~1836년 사이 어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득자인 장길갑의 신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04년생인 장길갑은 1827년 순조 27년 증광시(增廣試) 병과 47위인 자입니다. 어장을 소유한 장길갑은 무과를 급제한 양반 신분의 인물로 직접 어업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매매 사례와 같이 형식상 노비가 매매 당사자로서 기록되는 거래 관행과 달리 양반이 직접 매매자로서 기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이전보다 인민들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재산에 대한 대록, 허록등의 관행이 점점 알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기는 1843년 전기주(箭基主) 장상오가 박근배에게 전포청어전 1/6을 210냥에 매매하는 기록입니다. 1843년 문기 상 어전의 전주인인 장상오는 1836년 매득자인 장길갑의 부친입니다. 1836년 어전을 매득한 자는 아들이나, 1843년 어전의 절반깃의 매매시 원주(原主)가 부친으로 기재되어, 이로써 어전의 실소유주는 부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어전매매 문기의 사례는 짧은 기간 내에 어전의 일부가 여러 번 매매되었으나, 결국 원주인인 오정운이 그 매매에서 매득인과 매수인으로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흥덕현 심원면의 난호리 어전매매 문기에서 '환위(還爲)'라고 기재된 것은 황해도 어전 매매 사례와 같이 어전이 환매물(還買物)임을 의미하는데, 단기간에 매매자와 매득자가 되어서 어전을 빈번하게 사고파는 당시의 관행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황해도 웅진군 송당리 전포청어전(箭浦靑魚箭)의 1868년 매매 문기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문기를 본 강의에서 다시 소개하는 것은 동 문기 전후에 작성된 3건의 문기를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어전 매매의 실태에 접근하기 위해 더불어 분석하겠습니다.

문기가 작성된 시기는 1861년, 1866년, 1868년, 1870년으로 매매 대상은 전포청어전입니다. 총 4건의 문서인데, 1868년 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문서는 일본의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형식과 매매 대상 및 내역은 동일하며, 다음은 초기문서인 1861년에 작성된 문기 원문과 번역입니다. 표는 이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당리 전포청어전(箭浦靑魚箭)

咸豐十一年 辛酉 八月二十日 蔡參議宅奴金雲白前明文

1861년 함풍11년 8월 20일 채참의택 노 김운백 앞 명문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瓮津伏在 松當里箭浦魚箭基三分一衿及幕家一座 綿網仇佰把 杖船一隻 碇耳船一隻 櫓一介 水望船一隻 杖壹佰參十介 櫓一座具鎖開金 食鼎二坐 水瓮二坐 斗一介 升一介 刀子一介 廣耳二介 筥二介 鉅一介 漢所之二介 足板一介 斫貴二介 搗臼一座 爐一座 鍬一介 價折錢文捌佰兩 依數交易捧上是遣 以舊文記二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若有雜談 則以此諸文券 告官卞正事

이와 같이 명문하는 것은 스스로 매득한 웅진에 있는 송당리 전포어전 3분의 1 깃과 막가 1좌, 면망 900파, 장선 1척, 정이선 1척, 노 1개, 수망선 1척, 장 130개, 열쇠를 갖춘 궤1좌, 밥솥 2좌, 물항아리 2좌, 말 1개, 되 1개, 칼 1개, 괭이 2개, 끌 2개, 톱1개, 점바지 2개, 족판 1개, 작귀 2개, 절구 1좌, 화로 1좌, 삽 1개를 동전 800냥으로 값을 정하여 숫자대로 교역하여 받고, 본 문기 2장으로 영영방매하니 일후에 자손족류 중에서 만약 잡담이 있을 경우 이 여러 문권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

三分一衿箭基主 盧之沆 (手決) 삼분의 일 깃 전기주 노지항(수결)





訂人 崔聖在 (手決) 증인 최성재(수결)

본 문기는 1861년, 1866년, 1868년에 전포청어전 1/3 지분 매매 3건, 1870년 2/3 지분 매매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기는 1861년 1/3 지분을 전기주(箭基主)인 노지항이 동전 800냥에 김운백에게 어전과 집을 포함한 생활용품을 매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매매 대상이 어전의 1/3 지분뿐만 아니라 선박, 노, 면망(綿網) 등의 어획에 필요한 도구와 집, 밥솥, 물동이, 되, 칼 등 다양한 생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매 물품은 1866년과 1868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1870년에는 생활 물품은 막잡물(幕雜物)이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대상 물품은 앞선 문기와 동일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어전의 가격은 1861년 800냥, 1866년 900냥, 1868년 1,000냥으로 7년간 200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70년에는 다시 750냥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 후반의 어장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로, 생산의 위기가 어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당시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 어장 매매 문기에서도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장매매 문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조선 후기 어장 사적소유와 특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771년~1870년간 경기도, 전라도 황해도에서 작성된 어전매매 문기 16건, 입안 1건을 통해 조선 후기 어전이 사점되어 재산의 일부로서 활발하게 매매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의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어전매매 문기의 계약자는 개인 대 개인으로 당시 어전의 소유 주체는 개인 혹은 지분 분할 소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전의 전체 혹은 일부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쌀 30~300섬의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제 당시 하층민의 신분이었던 어민 개인이 정치성 어구가 설치된 어전을 소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로 양반 등이 재산의 일환으로 소유하고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있었으며, 균역법하에서는 해세를 부과하면서 자유롭게 어장이 사점되고 있었습니다. 분석 문기의 어전 소유주 가운데 한명은 양반 신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어전은 단기간에 매매·매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매수자가 동일 어장을 다시 매득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심지어 지난해에 판 어장을 다시 되돌려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바닷가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어전 매매 계약 성립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매물로서 어장의 환금성도 엿보입니다.

셋째, 어전은 재산의 일환으로 상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어전도 토지와 같이 재산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전의 사적소유 발달이 재차 확인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어전 매매문서의 작성 방식은 토지의 고유한 형식과 동일합니다. 이는 당시의 어전의 재산권적 가치가 토지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의 빚기를 매매문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매매문서 말미에는 공통되게 '고관변정사(告官卞正事)',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시대 토지, 가옥 등 매매시 분쟁 방지 차원에서 관으로부터 매매가 공인되었다는 것을 표기한 고유 문구입니다. 즉 이로부터 어전 매매는 관으로부터 토지와 동일한 공인된 권리가 부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전과 어선, 노, 어망 등 어획 도구, 아울러 생활용품도 매매 물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전은 어전 전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지분이 분할되어 매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매매가 이루어졌던 어전이 법적으로 지분 공유의 대상이지 마을 단위의 총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강의로 조선 후기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 후기 편찬 사료인 『여지도서』와 어장매매 문기를 분석과 설명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여지도서』는 수산물에 특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여지도서』에 수록된 물산 항목을 통해 18세기 지역별 수산물의 생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균역해세의 조세 수취 실적과 연계하여 지역의 어업생산에 대한 부문도 추정하여, 당시 어업실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있는 어장에 대한 민간의 사적소유 체제 발달은 어장매매 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한 말의 수산업과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2

Status of Fisheries in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Historical Records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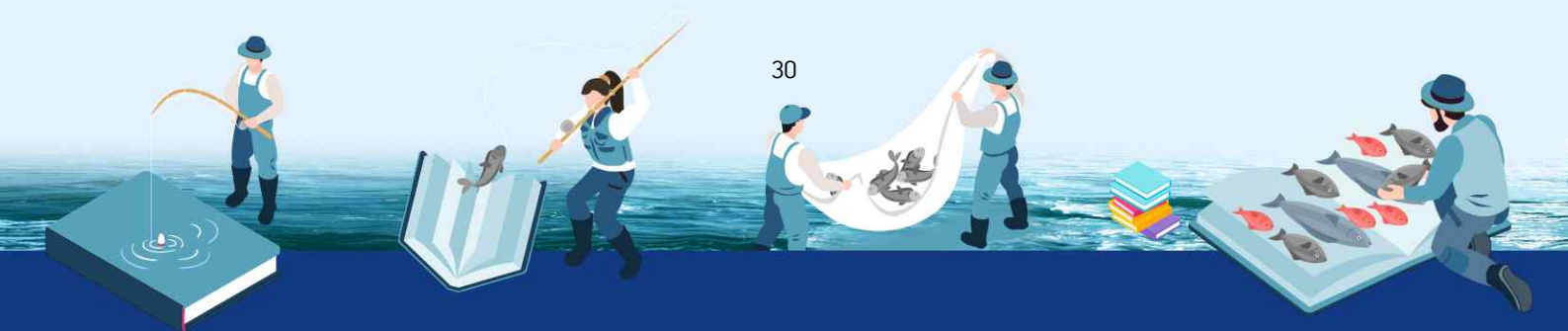
Fisheries in late Joseon period and historical records

Hello, students. I am Song Kyeong-eun, the instructor of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course. This second lesson is about understanding the status of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In last class, I discussed the process of changes in Joseon's maritime tax system and taxation objects. The object of taxation included fishing grounds and fishing gears which enabled fishery production. In this lecture, in a similar context, I will look into various historical records of late Joseon perio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s fishery resources which enabled th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ownership system, as well as the type of fishing grounds and the method of using those resources including fishing gears used at that time.

Have you seen the movie "The Book of Fish"? The most well-known historical record about fisheries from Joseon Dynasty is "Report on the Fish Species of Heuksan-do Island (The Book of Fish)", a fish encyclopedia by Jeong Yak-jeon.

《Report on the Fish Species of Heuksan-do Island》 was written by Sonam Jeong Yak-jeon who was exiled to Heuksan-do Island after being framed as a Catholic during the Sinyu Persecution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jo in 1801; he wrote three volumes of the book by compiling information about '226 species of Korea's fishes in the Korean sea' and categorizing them into 55 types in four categories, to help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of the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There are similar records such as Seo Yu-gu's Encyclopedia on Ranching, Fish Farming, Beekeeping, Hunting, and Fishing, as well as Kim Ryeo's Encyclopedia on Fishes and Shellfishes.





《Encyclopedia on Ranching, Fish Farming, Beekeeping, Hunting, and Fishing》written by Seo Yu-gu(徐有渠, 1764~1845) who was committed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is an encyclopedia of land animals, fresh water fishes and sea fishes, which also includes information about hunting and ranching, as well as fish farming and fishing. He had wrote 『Encyclopedia of Nanho Lake's Fishes』 when he lived near Nanho Lake in Jangdan county at the mouth of the Imjin-gang River and engaged in fishing by himself and then wrote the Encyclopedia on Ranching, Fish Farming, Beekeeping, Hunting, and Fishing by adding land animal information to it.

《Encyclopedia on Fishes and Shellfishes》is research paper on the fish species in the south sea of Korea, which is Korea's first ichthyology book written by Kim Ryeo in the 3rd year of King Sunjo's reign in 1803. The book was about fishes in the coastal sea of Jinhae, which was called Woosan back then. The author wrote the book over two and a half years when he was in exile in Jinhae due to a suspicion of being a Catholic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jo in 1801; he carried out a detailed inspection of the types of fishes in the inshore waters with fishermen there, to study and record their physiology, shape, habit, breeding, and usefulness.

'Encyclopedia on Ranching, Fish Farming, Beekeeping, Hunting, and Fishing', 'Report on the Fish Species of Heuksan-do Island', and 'Encyclopedia on Fishes and Shellfishes' were all written in the form of encyclopedia which writes about detailed explanations of fish, as well as how to fish them, that is, fishing gears and methods.

Let us look into 《Encyclopedia on Ranching, Fish Farming, Beekeeping, Hunting, and Fishing》in more detail. 《Encyclopedia on Ranching, Fish Farming, Beekeeping, Hunting, and Fishing》has three parts: part 1 ranching; part 2 fishing; and part 3 fish species.





Part 1 Ranching is about stock-farming, raising of animals. This part explains how to raise fishes in a pond at home, saying, "People recently buy young fishes and move them to their home and raise them." "Those young fishes are the ones caught by fishermen from big rivers through net casting, ...They are fed with the yolk of eggs of chickens or geese, as well as wheat bran or stir-fried bean powder, when they grow into a certain size, they are kept at a fish farm.", is a detailed description in the book about how to raise young fishes.

Part 2 Fishing explains fishing methods and how to catch fishes. It explains details of the method of catching certain species of fish, spots where certain fishes are, and seasons to catch them, including how to catch herring and yellow corbina.

For example, the method of catching mackerels explains, "They are produced in the coastal waters of Jeolla-do Province." "Fishermen gather at the beach and go out to the sea with fire every evening from July to October." "About a dozen people get on a boat ... (omitted) ... a piece of iron sized about 30 centimeters is hung approximately 30 centimeters above the hook to prevent the boat from floating; anchovy or mackerel meat is used as a bait. ... (omitted) ..." "The quantity of fishes caught over an evening is countlessly large. ... (omitted) ..." "Many of the residents of the Chuja-do Island make a living on this."; as such, this part contains various information about fisheries.

Part 3 Fish Species is a book about fish species, which has detailed explanation on various fishes. Let us see its records about pollack.





"People generally use living pollacks and dried pollacks." "They are produced in Gangwon-do Province." "Pollacks are scaleless, their spine is pale black and their belly is a little white." "Their head is large and long, taking up a third of the whole body; their body is round, gut is bulging and its end is sharpened."... (omitted) ... "Their eggs are inside two sacks ... (omitted) ... Pollacks are circulated across the country in large amounts because they are one of the best fishes along with herrings." "Pollacks are sweet, soft, and poisonless to make the human body warm and energized, so people like pollacks very much." "Pollack eggs and dried pollacks are consumed by many people too, but they were not recorded in the medical herb encyclopedia."

The book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fishes, including the area of their catch, shape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fishes, nationwide circulation of fishes, as well as their value as food product, etc.

What are other historical records regarding the fisheries of Joseon?

There are many government-published records and lawbooks demonstrate Joseon's general socioeconomic status. The most well-known ones include government-published records including 『Annals of the Dynasty of Joseon』,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Daily Records of the Royal Court and Important Officials』, and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as well as lawbooks such as 『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Supplementary Grand Code』,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and 『Design for Good Government』.

Those records were used for my discussions in last lecture. Those historical records help us understand the fisheries of Joseon Dynasty in industrial/economic/institutional terms, differently from the records in the fish encyclopedias.





There are also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and『Total Records of Corvee Labor』 which contain information about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especially the regional status of maritime tax and royal tributes and offerings, as well as fishing ground trading documents kept at Kyujanggak Royal Library no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museum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Tenri University of Japan, which can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privat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In the next lesson, we will take a closer look into the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from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among those historical records.





2-2

Fisheries in late Joseon perio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n last lesson, I explained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ypes of historical records. This time, I will discuss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 would like to mention for your information that the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the topic for this lesson, is reorganized from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ishery Products and Tax Collection during King Yeongjo’s Reign』 recorded in Korean culture, which is one of my studies.

The research paper was an analysis of fishery-related tax records including local products, tribute offering, and the equal tax in respective regions nationwide which were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n connection to one another, in order to review the status of national collection of maritime tax and its burden on the people. The analysis helped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tax burden at that time,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state’s tax collection system.

Let me give you a simple explanation about the historical record first.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s a comprehensive data that compiles information about all the district towns in counties and prefectures nationwide over the period from the 33rd year in 1757 to the 41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o be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 very important record that demonstrates how local communities were in mid-18th century.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has a total of 55 volumes, which contain information about total 313 district towns including the districts of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and Provincial Naval Headquarters.





The information about counties and prefectures contain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include that about boundaries, towns, roads, history of towns, county names, landscapes, fortresses, public offices, natural environment, family names, customs, royal tombs and lands, altars and shrines, public office buildings, dikes, warehouses, local products, bridges, stays for public officials, pastures, strategic points, beacons, towers and pavilions, Buddhist temples, historical remains, military camps, historical figures, unirrigated fields, tribute offerings, public grain loan, land tax, the uniform land tax, the equal tax, rice salary for public officials, soldiers, etc.

This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largely into four groups. First, there is information about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Rivers and roads that make boundaries are about the location of respective regions, and information about towns records about townships and areas of townships, family registers of townships, for exampl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population. History of towns and county names are about local histories, which are related to changes in the name and status of respective communities succeeding from the age of the Three States.

The information about landscape is about the topography of respective regions, for example, there is a record about the Ganghwa-do Island, "It is surrounded by the sea on four sides; the most famous mountain is Songak-san Mountain and the land there is fertile."The information about fortresses records about inner and outer walls of fortresses and mountain fortresses built for defense, as well as reservoirs.

Second category is information of local facilities. Royal tombs and lands include old tombs of kings and queens from the past, altars and shrines are where public memorial services are carried out, public office buildings are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and historical remains are historic sites from the past. Buddhist temples, dikes, warehouses, bridges, stays for public officials, and pastures are what they literally mean.





Strategic points refer to key military sites on waterways and land routes, such as Gapgot military camp on the Ganghwa-do Island, towers and pavilions, and military camps which also include encampments and bastions are all information related with military forces.

The third category is related with industries and taxes. Public grain loan for people was part of the state granary system; land tax, the uniform land tax, the equal tax, tribute offerings, local products, and unirrigated fields were information about regional taxation scal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his is the category most notably used for this lecture.

The fourth category includes rice salary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composition and number of soldiers. There were lists of famous local figures including those who had worked as chief magistrates or magistrate, as well as information on public offices, natural environment, family names, and customs.

Other studies have evaluated the information as the following.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as written based on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but was similar to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in its format, as items of taxation and military forces including the township and areas of townships, dikes, roads, tax on land, tribute offerings, public grain loan, land tax, the uniform land tax, and the equal tax were added; it is mentioned to better-demonstrate local products of respective districts than the indigenous product items in 『Newly Augmented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as it was written based on records about district towns compiled from respective regions nation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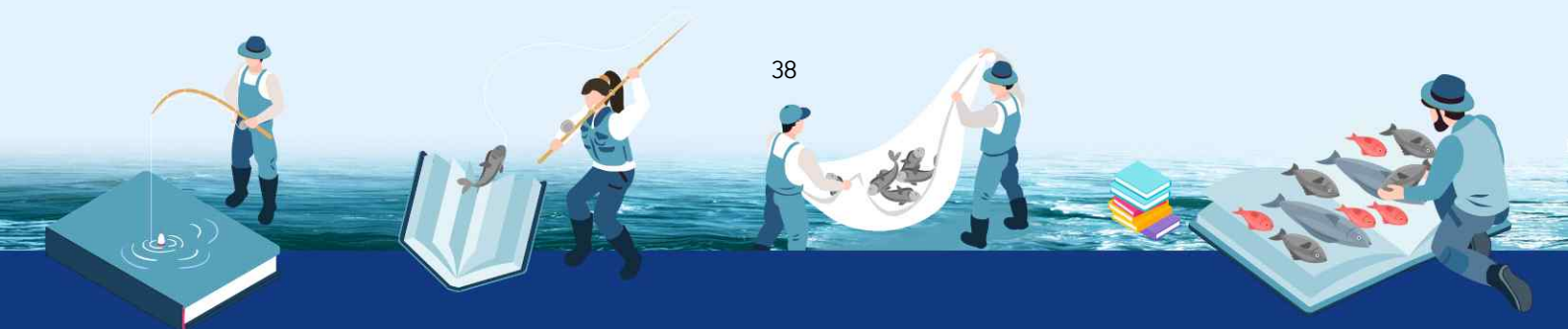


In additio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s value as historical material is highly appreciated in that it comprehensively compiled information about respective district towns' record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leadership. Notably, existing 『District Town Records』 are evaluated to have a limited value as historical material, as the time of their publication is uncertain and evidentiary data about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records is insufficient; however,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clearly resolves such limits in that it compi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t a certain point of time. This is what differentiates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from existing 『District Town Records』.

Still,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has its limit in that it lacks the consistency to be a national statistical data, as detailed rules on the way of incorporating and integrating local data from different regions do not seem to be sufficient when it is analyzed by category and by region. However, such limits of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can be resolved by carrying out a more thorough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for its analysis by applying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utilization of other relevant historical materials from the same time period, and so on.

Recently,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s used as a historical material to explain a certain region or studied in a more diversified manner for research of items contained in it and regionally comparative research on those items; this lesson will utilize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to examine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key-words for a certain field—fisheries.

First, let us take a brief look into the general situation of fisheries-related parts out of items recorded in the "local products" of respective region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based on statistics. To help your understanding, how the information on local products was actually describ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ill be shown as an example. The following article is a description about the Ganghwa-do Island.





“Coal and blue granite are all produced from Mani-san Mountain. “Skate, small shrimp, fresh big clam, short-necked clam, razor clam, oyster, small octopus, Korean anchovy, conch, gray mullet, prawn, solen, Chinese herring, jellyfish, yellow corbina, yellow croaker, shrimp, giant tiger prawn, fruit of Chinese pepper trees, persimmon, sea mugwort, reishi mushroom, rush, salt, cattail, perch, croaker, big-eyed herring, gizzard, crucian carp, carp, snakeheaded mullet

As such, there are total 34 items of the Ganghwa-do Island’s local products. This table shows items from eight provinces, including Gyeonggi-do Province, which are recorded in the “local products” part of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A total of 4,310 local products was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out of which 1,938 items were fishery product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44.97%.

The category of fishery products here refers to goods produced from the sea, including processed goods such as fresh/dried fish and frozen fish. This table shows collectively compiled figures of local products recorded for respective regions, regardless of their types.

As shown by the table, by region, Gyeongsang-do Province had the biggest number of local products at 851 items; as for fishery products, Hamgyeong-do Province recorded the largest number of items, followed by Chungcheong-do Province and Pyeongan-do Province.

The proportion of fishery products in entire local products was the highest for Gyeonggi-do Province, followed by Hamgyeong-do Province, Chungcheong-do Province, and Hwanghae-do Province. The average number of fishery products for all provinces was 56.3, with 71 types in Hamgyeong-do Province, 61 in Jeolla-do Province, 58 in Hwanghae-do Province, and 57 in Chungcheong-do Province and Gyeongsang-do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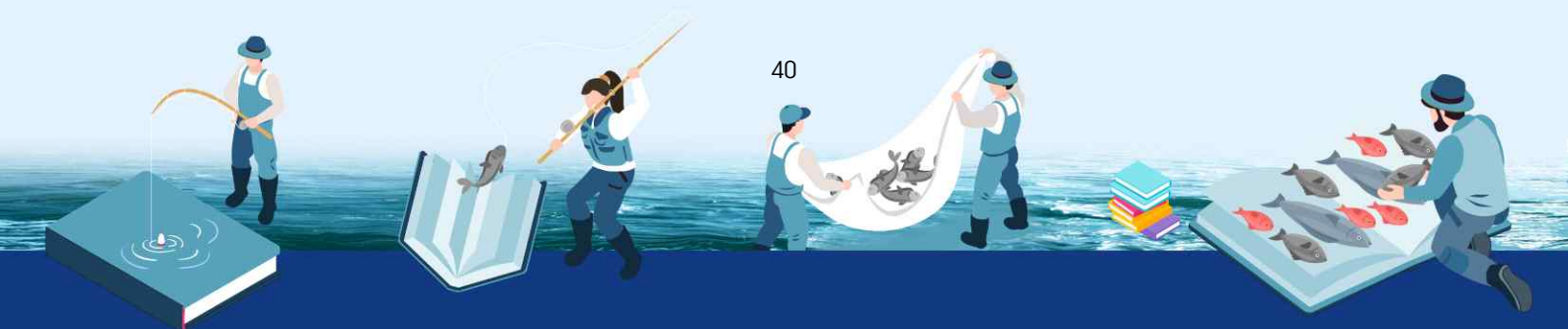


The items of tribute offerings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ere enumerated in lists like the local product category, as summarized in this table. Gangwon-do Province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in tribute offerings at 65.4% as 17 out of 26 districts in the province subject to tribute offering provided fishery products, followed by Hamgyeong-do Province, Jeolla-do Province, Hwanghae-do Province, Chungcheong-do Province, Gyeongsang-do Province, and Peyongan-do Province. An average of 45.3% out of all regions were offering fishery products.

Regarding the type of fishery products offered as tributes, Hamgyeong-do Province offered 21 types of fishery products and Gyeongsang-do Province offered 17 types, while Gyeonggi-do Province offered the smallest number of fishery products, only one, blue crab. As for processed fishery products, the number of fresh/dried/salted/fermented fishery products offered as tributes was 58 for Hamgyeong-do Province, 42 for Gyeongsang-do Province, 34 for Jeolla-do Province, and 31 for Gangwon-do Province.

The items regarding the equal tax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ncluded land tax, cash tax on land, cloth tax on select military officers, and fish/salt/boat/brown kelp tax which falls in the category of maritime tax. By region, the ratio of maritime tax imposition was the highest for Hamgyeong-do Province at 82.6% as it was imposed on 19 of 23 districts subject to taxation, followed by Hwanghae-do Province, Chungcheong-do Province, and Gyeonggi-do Province. Nationwide, about half of all regions at 51.4% were subject to maritime tax payment.

The amount of maritime tax imposition understood from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as total 78,342.14 nyang (brass coins), in which Jeolla-do Province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at 23,927.65 nyang and Gyeongsang-do Province at 20,261.65 nyang, while Gyeonggi-do Province took the smallest share at 3,389.9 nyang. We have examined the general status of fishery-related local products, tribute offerings, and maritime taxes of respective regions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so far.





Now, let us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ishery products and tax collect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Records of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demonstrate several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fishery-related tax collection into the central finance.

First,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s records about local products, maritime taxes, and tribute offerings help estimate where major fishery production sites were back then. For your information, we need to be cautious when interpreting those records, as recording about more types of fishery products does not necessarily mean bigger total production of fisheri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fisheries industry was relatively more advanced in the regions for which more types of fishery products were recorded.

The largest number of fishery products was recorded for Bukcheong in Hamgyeong-do Province as 35 types were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Nationwide, 23 out of total 296 districts had records of more than 20 types of local fishery products.

Four districts in Gyeonggi-do Province including Incheon, Ansan, and Ganghwa had 20 or more local fishery products, along with four districts in Chungcheong-do Province including Taeon, Seochon, and Seosan; one district, Dongrae, in Gyeongsang-do Province ; two districts, Gangreung and Ganseong, in Gangwon-do Province; ten districts including Bukcheong, Gilju, and Hamheung in Hamgyeong-do Province; two districts, Haeju and Gangryeong, in Hywanghae-do Province; and no such district in Jeolla-do Province and Pyeongan-do Province.

The highest number for Jeolla-do Province was 18 for Yeonggwang and Hongyang (now Goheung) and 16 for Pyeongan-do Province for Cheolsan. However, the district that paid the largest amount of maritime tax was Yeonggwang in Jeolla-do Province on which 2,823.3 nyang was imposed. The number of districts that paid 1,000 nyang or more maritime tax was 27 out of entire 296 distri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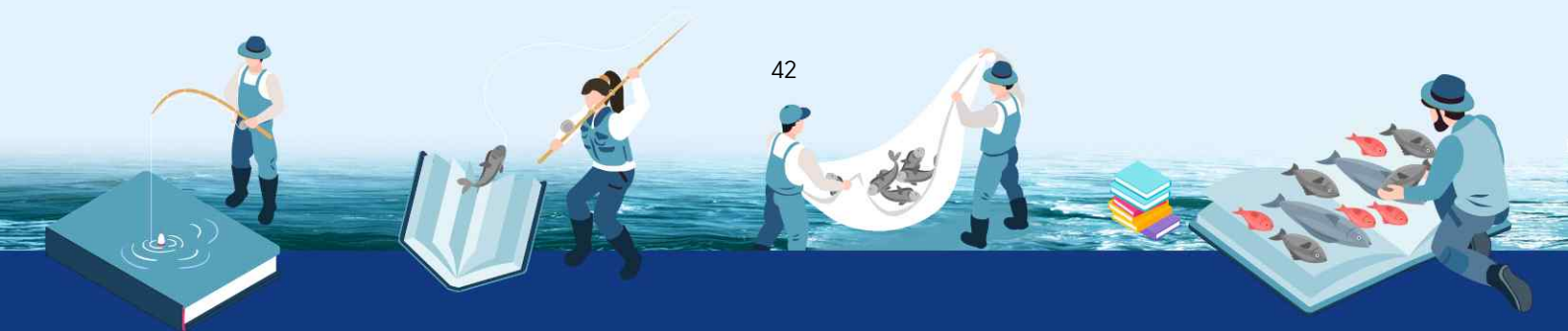


The number of districts that paid 1,000 nyang or more maritime tax was one in Gyeonggi-do Province: Namyang; three in Chungcheong-do Province: Hongju, Biin, and Seosan; 11 districts in Jeolla-do Province: Yeongam, Yeonggwang, Hongyang, Buan, Okgu, Naju, Mujang, Jangheung, Jindo, Gangjin, and Suncheon; eight districts in Gyeongsang-do Province: Yeongdeok, Dongrae, Geojae, Goseong, Woongcheon, Yeongil, Janggi, and Gimhae; one in Pyeongan-do Province: Pyeongyang; 2 in Hwanghae-do Province: Woongjin and Gangryeong; and none in Hamgyeong-do Province. In other words, there were diverse types of local fishery products in Hamgyeong-do Province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but a large amount of tax was not imposed on certain districts, which is quite contrary in Jeolla-do Province.

In another historical material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the districts that paid the largest amount of tax in Jeolla-do Province were Gogunsan in the first rank, followed by Wido in the second place; Yeonggwang, Buan, and Mangyeong in the third place; Mujang, Heungdeok, Gobu, and Okgu in the fourth place; Gwangyang, Suncheon, Nakan, Boseong, Heungyang, and Gangjin in the fifth place; and Jangheung, Yeongam, Haenam, Jindo, Muan, Naju, and Hampyeong in the sixth place. The maritime tax imposed on those districts was approximately 21,838 nyang, which shows they were important fishing sites. About 27% of the entire maritime tax amount was paid by those districts.

The district that offered the largest number of fishery-related tributes was Bukcheong in Hamgyeong-do Province, which provided total 28 types of local fishery products. The number of districts that offered ten or more fishery products as tribute was 33 out of 296.

There were 11 such districts in Jeolla-do Province: Gangjin, Yeongam, Gwangyang, Haenam, Jangheung, Heungyang, Suncheon, Naju, Jindo, Nakan, and Boseong; 1 in Gyeongsang-do Province: Goseong; 8 in Gangwon-do Province: Gangneung, Tongcheon, Goseong, Samcheok, Uljin, Ganseong, Yangyang, and Pyeonghae; 13 in Hamgyeong-do Province: Bukcheong, Heungwon, Yeongheung, Deokwon, Gilju, Myeongcheon, Dancheon, Inseong, Anbyeon, Hamheung, Muncheon, Gyeongseong, and Jeongpyeong; and none in Gyeonggi-do Province and Chungcheong-do Province.





Those 11 districts in Jeolla-do Province were major maritime imposition areas pointed out by 『Equal Service Office Lawbook』. In short,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s records about local products, maritime tax, and tribute offering demonstrate the fact that Yeonggwang in Jeolla-do Province was one of the most active fishery production sites.

Second,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played a role in Joseon Dynasty's investigation of the object of taxation on fisheries.

As shown in this table, the number of local fishery product items was larger in the districts to which maritime tax and tribute offering was imposed than the average of other district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hich makes it possible to estimate that the local product item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played the role of identifying the fisheries taxation object. In detail, 4.9 to 16.9 types of local fishery products were recorded for all regions on average, while the number was 8.76 to 19.5 for districts on which fishery-related tribute offering was imposed and 0.26 to 9.5 for other districts on which such tribute offering was not imposed.

Thus, the average number of local fishery products was larger for districts that offered fishery tributes than the average number in other districts on which the offering was not imposed. The same trend can be seen in the records about maritime tax; the average number of fishery tributes was 8.5 to 19.2 in districts that paid maritime tax, while it was 0.4 to 6.3 in districts with no maritime tax payment records.

In addition, the case of detailed records about the fish/salt/boat tax in Jeolla-do Province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yment of maritime tax on brown kelp, laver, and sea trumpet farms and the items of such local fishery products. Ownership system had long been advanced in certain waters where sedentary seaweeds such as brown kelp and laver grew wild; relationship of duties and rights were formed for such areas called brown kelp farm and laver farm as in the case of land, which is demonstrated by various title deeds that are the proof of frequent trading of those areas on the sea.





As such, the total amount of taxes on brown kelp, laver, and sea trumpet farms imposed on certain waters where they grew reached 758.5 won in eight districts in Jeolla-do Province. And such, those items were included in the records of the local products of respective regions.

As shown in the table, Yeongam paid taxes on brown kelp/laver/sea trumpet farms and those items were recorded as the district's local fishery products. Likewise, Heungyang paid taxes on brown kelp and sea trumpet farms and those items were recorded as the district's local fishery product, which is the same for Naju, Jangheung, Jindo, Gangjin, and Haenam.

There were a small number of contrary cases as well. For example, 12 out of 14 fishery tribute offering items of Yeongam were recorded in the local product category at the same time, but giant kelp and sea cucumber we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Seen from the record of Yeongam's tax payment on giant kelp farms, it is likely that giant kelp had been produced there. It seems that the items of giant kelp and sea cucumber were omitted from the local product category.

Gangjin was a similar case. Gangjin paid 115 nyang of tax on brown kelp, which accounted for about 7.7% of Gangjin's entire maritime tax at 1,497 nyang. However, the local product category for Gangjin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did not include dried brown kelp and best-quality brown kelp which were the district's tribute offering items.

Such omission from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can be indirectly proven from geography books published around the time of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s compilation. This table compares the fishery products out of local product items written by region in Yeongam and Gangjin, in 『Newly Augmented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that had been published about 200 years before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and 『Geography of Korea』 written after the publication of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Out of five items—abalone, brown kelp, gray mullet, mussel, giant kelp—not recorded as fishery products among Gangjin's tribute offering items, four excluding giant kelp were recorded in the local product category in 『Newly Augmented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or 『Geography of Korea』. This means that discrepancies took place in the records of indigenous or local product category in various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objective and source data used for the compilation of nationwide geography books.

Such omission is also estimated to have taken place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the category of indigenous products in previous geography books into two categories of local product and tribute offering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due to lack of nationally unified criteria for description.

There were also some districts where there needed to be more correlation between local products, tribute offerings, and maritime tax. In this table, there are some districts whose local fishery products and tribute offerings were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but which did not pay maritime tax; the number of local fishery products and tribute offerings of those districts was only one to three and one to two, respectively.

Maritime taxes were imposed on the same certain fishes by region. They were sweet fish for Gyeongsang-do Province, Manchurian trout for Gangwon-do Province, and yellow corbina and gray mullet for Chungcheong-do Province, which were generally fish living in the inland waters except for yellow corbina.

It is known that tributes, offerings especially, had a statutory feature out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late Joseon period and description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ere no exception from it. In other words, specifying and allotting a certain item that could be easily produced by respective regions while making all regions pay tributes and offerings was for a kind of justification that appeared in the part about the imposition of tribute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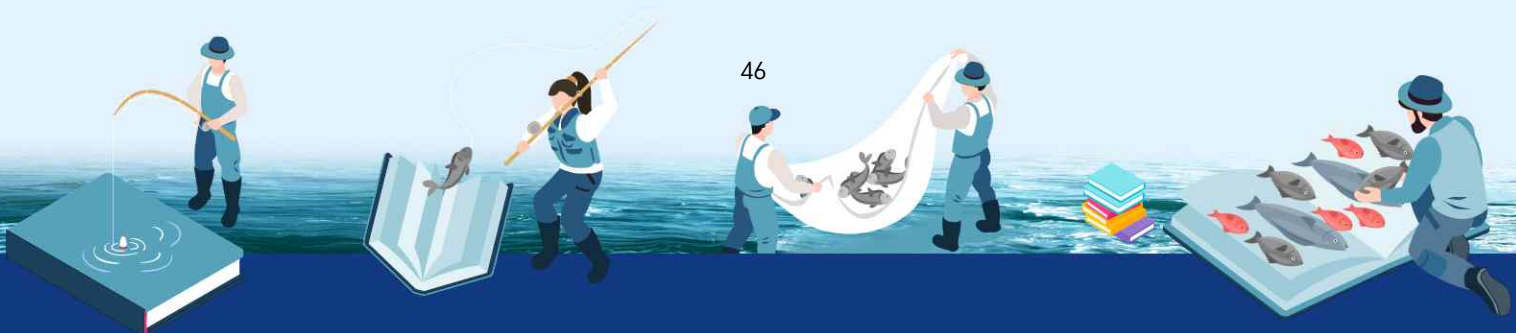


There were districts on which maritime tax was imposed even though local fishery products and tributes were not described. Those districts includes Danyang, Jecheon, Okcheon, and Yeongi in Chungcheong-do Province, but the amount of maritime tax there was only insignificant at 0.5 to 17 nyang.

The fact that only 0.5 nyang of maritime tax was imposed on Danyang in Chungcheong-do Province when at least 1 nyang of maritime tax was imposed on small fishing boats in Hamgyeong-do Province in the same record means that the scale of the maritime tax imposed on those district was smaller than the amount imposed on one small-sized boat in other districts. This can be seen as a case of officialism, which was suggested as a feature of operation of Joseon Dynasty's public finance in multiple studies so far.

In conclusion, even though some irregular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local products, tribute offering, and maritime tax as in the case just mentioned, it is thought that the local product category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as playing the rules of identifying the tax revenues from fishery products that could be coll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can be also thought that officialism such as an imposition of small-amount of tax at 0.5 nyang existed in the tax imposition record of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Third, the fishery product items offered as tributes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shows how much fishery products were processed and commercialized in Joseon times. To summarize the regional tribute offering, Gyeonggi-do Province and Pyeongan-do Province near the capital offered one to three types of tributes including crab, croaker, corbina, and eggs of jumbo shrimp and records about their processing was not clear.





Bigger numbers of items offered as tributes were imposed on regions farther apart from the capital: 15 for Chungcheong-do Province, 21 for Hwanghae-do Province, 31 for Gangwon-do Province, 34 for Jeolla-do Province, 41 for Gyeongsang-do Province, and 58 for Hamgyeong-do Province; the degree of fishery products' processing was more advanced in farther regions as well: there were 1.5 type of processed fishery product in Chungcheong-do Province, 1.9 in Hwanghae-do Province, 2.1 in Gangwon-do Province, 3.1 in Jeolla-do Province, 2.4 in Gyeongsang-do Province, and 2.8 in Hamgyeong-do Province.

Plus, it seems that tribute offering items were procured more by market distribution than local production in districts that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ocal tribute offering items but not in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which makes estimation about th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possible. Let us take a look at the case of Jeolla-do Province.

There were 96 items of Jeolla-do's tribute offering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five times for living abalone, nine times for sea cucumber, seven times for mussel, seven times for dried jumbo shrimp, six times for yellow corbina, six times for small laver, and four times for dried gray mullet. Sea cucumbers, mussels, and living abalones could be collected by professional divers, which were produced by those who were publicly allowed to catch and offer abalones or by collaboration of fishing communities.

Living abalones have long been regarded as a rare and precious food ingredient and it is thought that a distribution structure had already been formed for their offering to the royal court. A more detailed review of this is necessary, but three fishery items—abalone, mussel, sea cucumber—were included only in the local product category but not in the local product category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even though they had been included in the indigenous item category in 『Newly Augmented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Gangjin, Haenam, and Suncheon are the three districts of such a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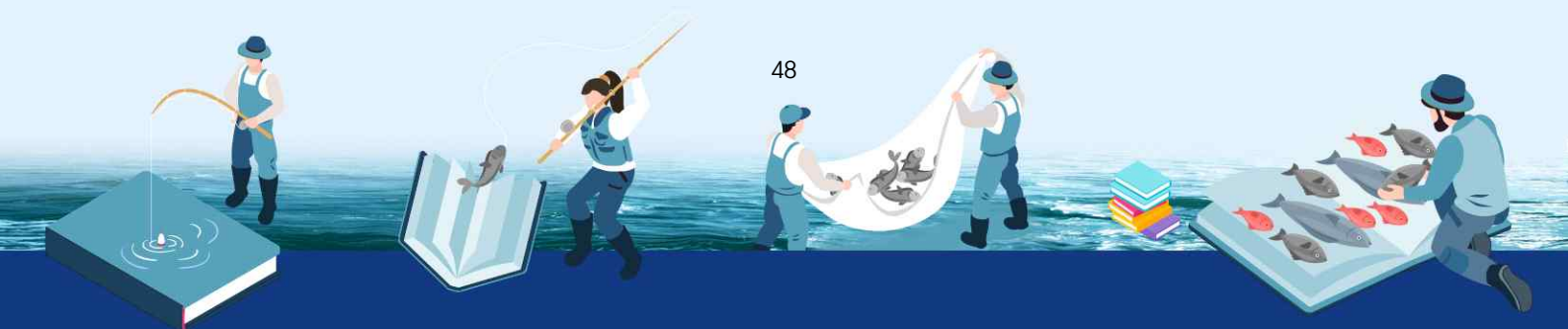
There are several feasible interpretations of such a case: first, those item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ribute offering not deleted from it perfunctorily even though they were not produced in those districts; second, a distribution route was formed for the procurement of those items to be offered as tributes; and las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simple omission from recording.

Eastern Kingdom』 was a historical material whose indigenous product items were written based on the tribute offering lists kept by respective regional government offices, the first interpretation is feasible. As Gangjin, Haenam, and Suncheon are well-known littoral areas with a large number of islands scattered around them, it is very unlikely that those items were not produced there.

The second interpretation is that a distribution structure regarding tribute offering of those items was formed in the market and this was reflect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n fact, there were various descriptions about abalone-related tribute offering items of Jeolla-do Province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living abalone, dried abalone, short-sliced and dried abalone, long-sliced and dried abalone, steamed abalone, steamed and dried abalone, fermented abalone, etc. However, as the market commercialization of abalones, mussels, and sea cucumbers has to be more clearly proven through more data and research, I propose its possibility in this lesson.

Other than those, dried jumbo shrimp, dried yellow corbina, and dried gray mullet were processed goods for long-term distribution, which allows for an estimation that those items were commercialized to a large extent, having been used not only as tribute offering items but also for consumption by ordinary people.

『Essays on Rural Life and Economy』 which recorded about the statistics of local markets in the late Joseon period, items traded at 316 marketplaces were recorded out of total 1,051 markets and 247 among them traded fish/salt products, so 78.2% were dealing with fishery products and this proposes the feasibility of fishery products' commercialization in Joseon in the 18th-19th century.





So far, I explained late Joseon's tax collection system for fisheries in terms of their production status, not of a system, under the topic of the "status of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historical records" which is also the topic for this lesson. Let me summarize major content of the lesson.

First, I explained the number and type of major local fishery products by region and compared them with other descriptions such as the items offered as tributes and imposition of the equal tax, based on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The district with the largest number of local fishery products and tribute offering items was Bukcheong in Hamgyeong-do Province with 35 local fishery products and 28 tribute items. The district that paid the largest amount of maritime tax was Yeonggwang in Jeolla-do Province that paid 2,823.3 nyang for maritime tax.

Second, while examining a co-relation between the local fishery item, maritime tax, and tribute offering items record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 introduced some cases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category of local fishery items, tribute offering items, and maritime tax items in some regions due to omission from recording of the equal tax payment.

It can also be thought that the usefulness and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is generally maintained, as tribute offering items of respective provinces were mostly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ir local fishery products and the tribute offering items of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that were in charge of a province's tribute offering were recorded as the tribute offering items of each province in the book. Plus, it can be seen from such fact that the category of local product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was playing the role of basic data for calculation of local products for tax collection from respective regions.





Third, the category of fishery tribute offering items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shows the fact that the level of fishery product processing was quite advanced at that time. Mostly, salted, dried, fermented, and frozen goods were the goods that could be easily distributed. Notably, more types of tribute items were offered and more processed products were produced in regions further distanced from the capital.

In this lecture, we examined the status of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Next time, I will discuss the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title deeds of trading of fishing grounds.





2-3

Fisheries in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title deeds of trading of fishing grounds

In the last lesson, we examined the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en from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This time, we will check whether private ownership and trading of fishing grounds exis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records of title deeds for fishing ground trade and how such trades were carried out.

Many historical records show cases of fishing grounds' private ownership and trading. Previous studies introduced title deeds written for trading of fishing grounds in Suwon in Gyeonggi-do Province and Ongjin-gun county in Hwanghae-do Province.

In this lesson, I will analyze the status of fishing ground trading by looking into records from the late 18th century until the late 19th century, including a title deed for a fishing weir located in Simwon-myeon township in Heungdeok-hyeon prefecture in Jeollabuk-do Province and title deeds for trading of a fishpound, fish trap, fish basket, and herring fishing weir in Songdang-ri village in Ongjin-gun county in Hwanghae-do Province, along with fishing ground trading deeds that had been utilized for other studies so far. This table shows the list of historical documents of fishing ground trading used for the analysis.

The first title deed was written in 1786 for trading of a fishing ground in Suwon, Gyeonggi-do Province. Let me read the original text shown here.

乾隆 五十一年丙午十一月 二十五日 李海南宅奴莫金前明文

A deed for Maksoe, a servant of Mr. Lee Hae-nam's house, written on November 25, 1786

右明文事段 上典宅切有用處 水原佳士串面 鷄頭山下浦邊 陳江岩網場 形止段 鹽岩周 四千五百餘步內 一授二授兩庫 合二百五機是遺 四標段 東距大同岩五里 南西距猪岩五里 西距黃岩二十里 北距鷄頭峰 五里庫乙 價折錢文 壹百伍拾兩 依數 交易捧上是遺





This deed is created for the master's sale of the fishing ground for 150 nyang of brass coins, the net pitching near Jingang-am rock in the waters under the Gyedu-san Mountain in Gasagot-myeon township in Suwon which includes 205 sites within 4500 footsteps' distance around the salt rock, 5-ri(appr. 2km) from Daedong-am in the east, 5-ri from Jeo-am in the south, 20-ri from Hwang-am in the west, and 5-ri away from Gyedu-bong in the north.

立旨一張 上典主牌子導良 右人前 永永放賣成文以給爲去乎 日後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The site is sold permanently to the purchaser based on a power of attorney from the master and this deed is written for the trade; if any conflict arises regarding it, this deed shall be used for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網基主 李生員宅 金夢(左手寸)

Owner of the net pitching Geummong from the house of Mr. Lee (Jwasu-chon village)

証人 私奴 占尙(左手寸)

Witness private servant Jeomsang (Jwasu-chon village)

私奴 卜善(左手寸)

Private servant Bokseon (Jwasu-chon village)

私奴 命山(左手寸)

Private servant Myeongsan (Jwasu-chon village)

筆執 良人 李燁(手決)

Written by commoner man Lee Yeop (signature)

This is a fishing ground trading title deed written in 1786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qualized Tax Law. It was written at the time of trade of a fishing ground located in Suwon, Gyeonggi-do Province, which is now Gwongwan-ri village, Hyeondeok-myeon township, city of Pyeongtaek-si, Gyeonggi-do Province. The item of trading was a 250m-sized fishing ground in which net pitching was installed and it was sold at 150 nyang of brass coins equivalent to 30 piculs (appr. 5,400 liters) of rice.





The deed specifies the location of the fishing ground by clarifying its northern/western/southern/northern boundaries, for which the names of inland places such as Daedong-am, Jeo-am, Hwang-am, Gyedu-bong provided the benchmark. Plus, the sea divided by fishing gears—fishing nets—were named a fishing ground and it was traded in the same manner with the land.

Regarding this, there also exist certificates for the same fishing ground, documents issued by the district government of Suwon. Certificates are documents issued by government offices of Joseon Dynasty at individuals' requirement, which were issued to authorize trading/transfer/adjudication/jural succession requested by individuals based on the government's check on relevant facts.

The same elements were recorded in the title deed written in 1786, including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fishing ground, which had been the same in a title deed written before in 1762. The owner of the fishing ground specified in the title deed was Sewi, a servant of Mr. Lee, a classics licentiate. In the late Joseon period, a servant of an original landowner was specified as a contracting party on a title deed according to trading practices back then even though the actual owner of the traded land was a nobleman, which is also shown in this title deed. This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 fishing ground in question belonged to the house of Mr. Lee over the period from 1762 to 1786.

Let me go on to the second case of fishing ground trading in Heungdeok-hyeon prefecture in Jeollabuk-do Province. The title deeds were written for trading of a fishing ground in 1826, 1828, and 1839. There exist total three sheets of documents and this one here is an original text written in 1839, the latest one, and its translation. Let us look into the detail.

道光十九年 己亥 六月 日 李永仲 前明文

A deed for Lee Yeong-jung on June, th day, 1839





右明文事段 右人前 買得是在 心元面 蘭勿後洋吉嚴滄伏在 漁箭一庫看水船一隻抹五結 折價錢文一百五十兩 (本文記三丈并以新文記) 還爲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弊 以此告官卞正事

This deed is written for a permanent sale of a fishing ground located in Gireom-chang treasury in the back sea of Nanmul area in Simwon-myeon township, which had been purchase from this person, one boat for fishing at fishing grounds, and five poles at 150 nyang of brass coins (based on a new deed along with these three title deeds); if any conflict arises afterward, this deed shall be used for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明文主 陳寬性 (手決)

Title deed owner Jin Gwan-seong signature

筆證 陳乃叟 (手決)

Certificate of payment Jin Nae-su signature

These title deeds for trading of a fishing ground demonstrate trading records of a fishing ground located in Gireom-chang treasury area in Nanho-ri village, Simwon-myeon township, Heungdeok-hyeon prefecture in Jeolla-do Province over the period from 1826 to 1839. The rights to the fishing ground were transferred from Hyeon Deok-il to Lee Jeong-gak in 1826, from Lee Jeong-gak to Jin Gwan-seong in 1828, and from Jin Gwan-seong to Lee Yeong-jung in 1839.

The object of the trade included the fishing ground, one boat used for fishing at fishing weirs, and poles. The boat used for fishing at fishing weirs was a small boat used to see shoals of fishes. Poles are wooden stakes to support fishing nets. Stakes refer to wooden columns that worked as the support fixtures for fishing weirs.

Those poles set the boundary to indicate the area of a fishing weir and a unit called 'gyeol' was used to represent the size of a fishing ground. Gyeol was used as a unit to indicate the area of farmland in Joseon Dynasty, but it was a relative area, not an absolute area, which reflected the concept of productivity. Since 1902, 1 gyeol was defined to be 10,000 square meters and one hectare, and based on that standard, five gyeol of the fishing ground in the title deed can be converted into approximately 15,000 pyeong.





The price of the fishing weir had been 230 nyang both in 1826 and 1828, but it went down to 130 nyang in 1839. The reason for the sale of the fishing ground in 1826 and 1828 was recorded to have been inevitable due to heavy debts, which indicates the fact that fishing weirs were the object of trading in times of financial difficulties as a cashable asset like land.

In addition, the documents written in 1826 and 1828 recorded “this fishing weir was purchased and screen was tied up”, which demonstrates the fact that investment in fishing such as installing fishing gears on fishing weirs was maintained consistently.

The trading title deeds include a phrase “these three deeds along with a new document”, which was written in the form of attachment added to the three title deeds written regarding the fishing ground in question. This means that trading of the fishing ground had taken place before and the fishing ground’s value as an asset was maintained like land.

Another document for Lee Yeong-jung’s purchase of the fishing ground contained the word “resell”, which did not appear in other documents, which meant selling a thing that one had purchased before. The document does not include such information, but it is likely that Lee Yeong-jung or the house of Lee Yeong-jung had owned the fishing ground before the trading in the title deed. Let us look into a case of a fishing ground in Ongjin-gun county in Hwanghae-do Province, whose seller purchased it again next year.

The third one is regarding a case of a fishing ground trading in Ongjin-gun county, Hwanghae-do Province. There exist total 12 cases of title deed from Ongjin-gun county, Hwanghae-do Province, which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traded goods. They were named fishpound, fish trap, fish basket, and herring fishing weir, and it is hard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referring to the same fishing ground. This figure shows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Ongjin-gun county in Hwanghae-do Province.

Fishpound in Songdang-ri village





乾隆三十六年辛卯四月二十七日 崔光規前明文
1771년 건륭36년 신묘 4월 27일 최광규 앞 명문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箭浦箭 箭杖木二百五十介 眞網十四幅 網竹三介 約是三介 幕杖水望船一隻 定伊船一隻等物折半及本文記六章 官斜三章 和會文記一章 右人前價折錢文四百兩 依數交易捧上 永遠放賣爲乎矣 某同生子孫中 日後若有雜談 則此文告官卞正者

This title deed is written for a permanent sale of the half of 250 wooden poles, 14 fishing nets, three netting stakes, three keys, one net maintenance boat, and one fishing boat, six sheets of this title deed, three sheets official deed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one record about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mong siblings at 400 nyang of brass coins to this person; if any conflict arises afterward among the offspring of any sibling, this document will be used for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箭主 韓廷佑 (手決)

Fishing ground owner Han Jeong-woo (signature)

證人 韓臥孫 (手決)

Witness Han Wa-son (signature)

筆執幼學 朴處演 (手決)

Written by Park Cheo-yeon (signature)

This fishing ground trading deed was in the earliest time in 1771. The object of the trading was a fishpound in Songdang-ri village in Yongyeon-myeon township in Hwanghae-do Province, including supporting poles, nets, and fishing boats as fishing gears. The deed also contained a record about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mong siblings as an attachment. For your information, the record was written to divide property among siblings after the death of their parents, which is distinguished from inheritance documents directly written by parents.





This means that the fishing weir had existed from before 1771. Since the fishing weir was inherited from ancestors, fishing weirs were considered property among ordinary people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title deed also includes official deeds issued by the government, which means that the government authorized the property value of fisheries ownership in the same context as land.

Fish trap in Songdang-ri village

道光七年丁亥六月初四日 韓震奎前明文

A deed for Han Jin-gyu on June 4th day, 1827

右明文事段 祖先傳來是在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 鵲堂箭三分二衿中折半衿 價折錢文柒百兩 依數捧上是遣 杖網丁耳船 水望船及柴浦雜魚箭半半衿 并以右人前 永遠放賣 而本文段在於都文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若有雜言 以此告官卞正事

This deed is written for a permanent sale of the half of two-thirds of a fish trap located in Songdang-ri village in Yongyeon-myeon township in Ongjin-gun county which had been inherited from ancestors at 700 nyang of brass coins, including a fishing boat and maintenance boat, as well as half of miscellaneous fishing gears, to this person; this deed cannot be permitted alone as it is included in a series of title deeds, if any conflict arises among the offspring of the siblings afterward, this will be used for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箭基主 金良鎰 (手決)

Previous owner Kim Ryang-il (signature)

從祖 興哲 (手決)

Brother of grandfather Hong Cheol (signature)

證筆 孫繼祖 (手決)

Guarantor Son Gye-jo (signature)





This title deed was written in 1827 for trading of part of a fishing trap inherited from ancestors, one-thirds of it, as well as a fishing boat. The object of the trading was a fishing weir inherited from ancestors, as in the case of the fishpound in Songdang-ri village in the previous case.

Seen from the fact that a series of deeds with attachments recording the property inheritance to all the inherited and respective individuals until that time exists, the fishing weir was distributed to siblings by shares. Plus, the price of one-third of the fishing weir and boats in Hwanghae-do Province was 700 nyang, which shows the fact that the economic value of fishing grounds there was higher than that of fishing grounds in other regions such as Jeolla-do Province.

A fish basket in Songdang-ri village

道光十六年丙申十一月初九日 張吉甲前明文

A deed for Jang Gil-gab on November 9th day, 1836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 烏頭箭三分一衿 價折錢文肆百伍拾兩 依數捧是遣 杖網定耳船二隻 水望船一隻及柴浦箭三分一衿 舊文記陸張 并以右人前 永遠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雜談則持此卞正者

This deed is written for a permanent sale of one-thirds of fish basket in Songdang-ri village, Yongyeon-myeon township, Ongjin, which I had bought by myself at 450 nyang of brass coins, including two fishing boats, one maintenance boat, miscellaneous fishing gears, as well as six old deeds, to this person; if a conflict arises among descendants afterwards, this deed shall be utilized for resolution.

自筆箭主 吳鼎允 (手決)

Written by fishing weir owner Oh Jeong-yoon





It is a fishing weir trading title deed created over the period from 1832 to 1836. It includes total five sheets of documents and this deed here is the latest one. Five deeds written before this one had different purchasers, sellers, selling shares, and trading prices, and other elements and the format of the document than those were the same.

This table shows major elements of the title deeds. As for the fishing ground in question, total five tradings took place, including four in 1833 and one in 1843. In May 1832, Oh Jeong-yoon sold one-sixths of its share to Lee Jong-pyo and Won Ik-yeong respectively at 330 nyang of brass coins and then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Lee Jong-pyo sold one-sixths of share again to Won Ik-yeong at 400 nyang of brass coins. Eventually, the share of one-thirds of Oh Jeong-yoon's fishing weir came to belong to Won Ik-yeong.

In that process, Lee Jong-pyo earned 70-nyang of margin by selling his one-sixth share of the fishing weir to Won Ik-yeong. Then, in 1833, Won Ik-yeong sold his one-third share of the fishing weir to its original owner Oh Jeong-yoon at 730 nyang of brass coins. Eventually, Oh Jeong-yoon had sold one-third share of his fishing weir at 660 nyang in May 1832 and then purchased it again at 730 nyang in October 1833.

Then, three years later in 1836, Oh Jeong-yoon sold the one-third share at 450 nyang. Over the three-year period, the price of the fishing weir went down by as much as 280 nyang from 730 to 450 nyang. Such decline is proof of the plunging value of fishing grounds over the period from 1833 to 1836.

Meanwhil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status of Jang Gil-gab, the purchaser. Jang Gil-gab was born in 1804 and took the 47th place in the augmented state examination for selection of military officers in the 27th year of King Sunjo's reign, 1827. As Jang Gil-gab, the owner of the fishing ground, was a nobleman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for selection of military officers, he is not thought to have engaged in fishing by himself.





Unlike the trading practice of specifying a servant as the trading party as a formality as seen in the case of trading in Suwon, Gyeonggi-do Province, this title deed specified a nobleman himself as a trading party. This reflects the trend of diminishing practice of proxy or false recording about property, following growing awareness of ownership among commoners.

The last title deed was written for original owner Jang Sang-oh's selling of a one-third share of his herring fishing weir to Park Geun-bae at 210 nyang of brass coins. The original owner of the fishing weir recorded on the title deed written in 1843, Jang Sang-oh, was the father of purchaser Jang Gil-gab in 1836. The purchaser of the fishing weir in 1836 was the son; however, as the father was specified as the original owner when the half of the fishing weir was traded in 1843, we can see that the actual owner was still the father.

The title deed of the fishing ground shows the fact that part of it were traded for several tim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its original owner Oh Jeong-yoon had always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trades as a purchase and seller. The record about "resell" in the title deed for trading of a fishing weir in Nanho-ri village in Simwon-myeon township, Heungdeok-hyeon prefecture, Jeolla-do Province, meant that the fishing weir in question was a resold item, demonstrating a trading practice of that time when people purchased and sold fishing weirs frequently as both a purchase and seller.

The 1868 title deed for the herring fishing weir in Songdang-ri village in Ongjin-gun county, Hwanghae-do Province have been utilized by many studies so far. I am introducing this title deed because I have also obtained three other title deeds written around the time of its creation. I will analyze them as well, to get a clearer view of fishing weir trad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time when the title deeds were written was the year 1861, 1866, 1868, and 1870 for trading of a herring fishing weir. Four documents are included in the title deed, out of which the one written in 1868 is now kept at the Kyujanggak Royal Library and the other three at Tenri University in Japan. The form and trading object were the same between them;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text of the deed written in 1861 and its translation. This table shows major elements of the title deed.

Herring fishing weir in Songdang-ri village

咸豐十一年 辛酉 八月二十日 蔡參議宅奴金雲白前明文

A deed for Kim Woon-baek, a servant of councilor Chae, written on August 20, 1861

右明文事段 自己買得瓮津伏在 松當里箭浦魚箭基三分一衿及幕家一座 綿網仇佰把 杖船一隻 碇耳船一隻 櫓一介 水望船一隻 杖壹佰參十介 櫓一坐具鎖開金 食鼎二坐 水瓮二坐 斗一介 升一介 刀子一介 廣耳二介 筥二介 鉅一介 漢所之二介 足板一介 斫貴二介 搗臼一坐 爐一坐 鍬一介 價折錢文捌佰兩 依數交易捧上是遣 以舊文記二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若有雜談 則以此諸文券 告官卞正事

This deed is written for a permanent sale of one-thirds of the herring fishing weir in Songdang-ri village, along with one hut, 900 fishing nets, one long boat, one fishing boat, one paddle, one maintenance boat, 130 poles, one coffer with a key, two rice pots, two water pots, one measuring pouch, one measuring box, one knife, two hoes, two chisels, one saw, two scoop nets, one step board, two adzes, one mortar, one brazier, and one shovel at 800 nyang of brass coins based on these two deeds; if a conflict arises among offspring afterward, these title deeds will be utilized for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三分一衿箭基主 盧之沆 (手決)

One-thirds share owner Noh Ji-hang (signature)

訂人 崔聖在 (手決)

Witness Choi Seong-jae (signature)





This title deed records about three one-third share trades of the herring fishing weir in 1861, 1866, and 1868, as well as a two-third share trade in 1870. The first deed was written for selling of a one-third share of the fishing weir and living necessities including a house from its owner Noh Ji-hang to Kim Woon-baek at 800 nyang of brass coins in 1861.

The object of trading included not only the one-third share of the fishing weir, but also fishing gears including boats, paddles, and fishing nets, as well as various daily necessities such as a hut, rice pot, water pot, measuring box, knife, etc. such items of trading were maintained until 1866 and 1868; those daily necessities were simply recorded as miscellaneous goods in the deed written in 1870, but the goods included in that category are estimated to be the same with those in the previous deeds.

The price of the fishing weir rose by 200 nyang over seven years, from 800 in 1861 to 900 in 1866 and then to 1,000 in 1868. However, the price went down to 750 nyang again in 1870. The title deeds for trading of fishing grounds demonstrate deteriorating economic environment in mid-19th century when the price of fishing grounds was going down and production crisis was also being reflected in fishing grounds.

Lastly, I will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in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putting the content of the fishing ground trading title deeds together. The 16 title deeds for trading of fishing grounds and one certificate written over the period from 1771 to 1870 in Gyeonggi-do Province and Jeolla-do Province are the proof of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late Joseon period when fishing grounds were privately owned and began to be traded actively as part of private property. Thi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contracting parties specified on title deeds for trading of fishing grounds were individuals, which indicates the fact that the owner of fishing weirs at that time were individuals or those who had the shares. For an individual to own the entire or share of a fishing ground, the person had to pay a high price at 30 to 300 piculs of rice.





In reality, it would have been hard for individual fishermen from lower classes to own a fishing ground in which fixed fishing gears were installed. Generally, noblemen owned them as part of their private property and inherited them to their descendants and under the Equalized Tax Law, fishing grounds were privately and freely owned by people along with the imposition of maritime tax. One of the the owners of the fishing ground in the analyzed title deeds has been identified as a nobleman.

Second, fishing grounds were sold and purchased frequently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re were cases where a purchaser bought the same fishing ground again. One even purchased the fishing ground he had sold in the previous year again. This shows fishing weir trading contracts could be concluded frequently in coastal areas. It also demonstrates the cashable characteristic of fishing grounds as an object of trade.

Third, fishing weirs were inherited as part of private property, which means that fishing weirs were perceived as part of personal property like land,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other words, all those evidence demonstrates the development of private ownership of fishing weirs.

Fourth, fishing weir trading documents were written similarly to those for land. This can be understood as recognition of fishing weirs' property value in the same context with land at that time. Notably, government-issued certificates were contained in the trading deeds and at the end of every trading document, the phrase "resolution at the government" was put in.

It was a unique phrase used to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authorized trade to prevent conflicts regarding trading of property, such as land and hou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short, official rights were granted for the trading of fishing weirs by the government as in the case of land.





Fifth, fishing weirs, fishing gears, boats, paddles, and nets, and daily necessities were sometimes included in the object of trading. Lastly, there were cases where an entire fishing weir was traded and others where only a share of it was traded. This means that fishing weirs traded back then were the object of sharing from a legal perspective, not the object of collective ownership by villages.

In this second lesson, we have examined the status of fishe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by looking into historical materials from that time. For that purpose,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fishing weir trading deeds were analyzed and explained.

In short, I gave an explan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fisheries in the 18th century by checking on the information of fisheries production in respective regions based on the local product category in 『Illustrated Records of the Provinces』, even though the book was not specialized in fishery products, and by estimating regional fisheries production with regards to the collection of maritime tax under the Equalized Tax Law. Plus, advancement of a private ownership system for fishing grounds with economic values can be seen from title deeds for trading of fishing grounds.

In the following third lesson, I will explain the topic of fisheries and introduction of modern fisheries law in the end period of Joseon. This is the end of the second lesson.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2周

史料中可见的朝鲜王朝后期水产业实际情况

2-1

朝鲜王朝后期水产业和史料

同学们好，我是担任《韩国渔业发展史》讲座的宋庆殷。

本次讲座是第二堂课，我们将通过史料来对朝鲜王朝后期水产业的实际情况来做一些了解。

在上次课中，我们观察了朝鲜的海税制度和收税对象变迁的过程。

收税对象即可从事渔业的渔场和用于渔业的渔具。

此次讲座是在之前的延长线上，以通过多种史料考察朝鲜后期优先发展水产资源的所有权体制的资源特征和渔场的形态、使用的渔具等利用方式为主题进行。

大家看过电影《兹山鱼谱》吗？

在与朝鲜时代的水产业有关的史料中，最熟悉的当属丁若铨所著的鱼类百科全书《兹山鱼谱》。

《兹山鱼谱》由巽庵丁若铨所著，1801年纯祖1年，他在辛酉迫害事件中被诬陷为天主教徒并被流放到一座海上孤岛——黑山岛，为了帮助岛民生活，收集整理‘我国海中的226种鱼类’，并将其细分为4大类55小类，整理成册，共计3册。

类似的资料还有徐有渠的《佃渔志》以及金鑣的《牛海异鱼谱》。

《佃渔志》是由朝鲜王朝后期志在造福苍生的徐有渠（1764~1845）所著。它作为一本动物百科全书，其中收录了许多陆生动物、淡水鱼和海水鱼。佃渔志的“佃”是指狩猎和放牧，“渔”是指捕鱼和养鱼。据说，徐有渠住在临津江河口长湍附近的兰湖时，他亲自捕鱼，并根据鱼类百科全书『兰湖渔牧志』，结合陆生动物的信息，写下了佃渔志。

《牛海异鱼谱》是韩国第一部鱼类学著作，作者金鑣，于1803年纯祖3年所著。它也是韩国南海岸鱼类相关的研究书目。牛海是指镇海沿岸海域，镇海也被称作牛山。





这本书是作者在1801年纯祖1年因涉嫌信奉天主教而被流放到镇海的2年半时间里，与那里的渔民们到近海仔细调查鱼的种类，对其生理、形态、习性、繁殖、效用等进行研究并记录下来的资料。

《佃渔志》、《兹山鱼谱》、《牛海异鱼谱》等均为百科全书形式，对鱼类的描述较为详细，有的还对捕捞方法，即对渔具使用以及捕鱼方法进行了阐述。

其中，我们以《佃渔志》的史料为例。

内容分为第一篇牧养、第二篇渔钓、第三篇鱼名考。

第一篇牧养，牧是放牧的‘牧’，养是饲养的‘养’，即饲养家禽的意思。

也就是说，这里包含了在家里的池塘里养鱼的方法。比如书中详细描述了幼鱼的饲养方法，“现在的人们只买幼鱼来转养，幼鱼一般是渔民们在河里乘着潮水撒网捕到的……喂鸡或鹅的蛋黄，或喂麸皮，炒豆粉，待到幼鱼们稍稍长大时放入养鱼池里喂养。”

第二篇渔钓，渔是渔获的‘渔’，钓是钓鱼的‘钓’，渔钓即钓到和捕到鱼的方法。

书中详细介绍了青鱼、石首鱼等特定鱼种的捕捞方法、地点、可捕时间等。

例如，捕古刀鱼法是捕捞青花鱼的方法，“（该鱼）出自湖南的沿岸海域。七月到十月，渔民们每天傍晚出海，烧火乘船出海。一船十余人……（略）……钩子向上1尺左右的地方吊起1尺长的钢，使钩子不浮起来，诱饵用的是杏鱼，或者用的是古刀鱼的鱼肉。……（略）……一晚上钓到的鱼数不胜数。……（略）……很多生活在楸子岛的人们都以此为生。”除了记述其捕鱼方法，还收录了有关渔业的各种信息。

第三篇《鱼名考》是一本鱼类图鉴，对鱼类进行了详细说明。

接下来看一下有关明太鱼的记录。

“一般称活鱼为明太鱼，称晒干的鱼为北鱼（干明太鱼）。另外，它产自关北。无鳞，脊椎淡黑色，腹部微白，头大而长，几乎占体重的三分之一。躯干圆润，肠子鼓起，尾部尖削……（略）……鱼籽包裹在两个鱼卵里……（略）……许正是因为这种鱼与青鱼同为极品，才广泛流通于韩国八道。此鱼味甘、柔软、无毒，还具有温中补气之功效，故为人们所重视。一般称其鱼卵为明太鱼子，称晒干的鱼为北鳧鱼（干明太鱼），但本草诸家未见记载。”





该史料提供了有关鱼类特征的详细信息，例如捕捞区域、鱼类的形状和生物学特征、鱼类在全国的流通情况和商品详情，即作为食用商品的价值。

除此之外，还有哪些与水产业相关的史料呢？

首先，有一些官撰史料和法典涵盖了朝鲜的一般社会经济状况。

代表性的官撰史料有『朝鲜王朝实录』、『备边司誊录』、『日省录』、『承政院日记』，法典有『朝鲜经国传』、『经国大典』、『续大典』、『均役厅事目』、『经世遗表』等。

上一讲也主要用到了这些史料。

这些资料与前面介绍的鱼类百科的史料不同，是有助于我们从产业、经济、制度等方面了解当时渔业的史料。

此外，在朝鲜王朝后期渔业方面，『舆地图书』和『赋役实总』收录了尤其是那些要缴纳海税以及负责进贡的各地区的实际情况，首尔大学奎章阁、全北大学博物馆、日本天理大学所收藏的韩国古文书中的渔场买卖文书是可以证明渔场私有权的书面材料，这些也是一种重要的史料。

下一节课将通过前面提到的各种史料中的《舆地图书》了解朝鲜后期的水产业。



2-2 《輿地圖書》中可见的朝鲜后期水产业

上一节课我们了解了朝鲜后期水产业和史料种类。

这次我们将通过《輿地圖書》了解一下朝鲜后期水产业。

作为参考,此次讲座的小主题即通过《輿地圖書》看一下朝鲜后期水产业是以我的研究中被韩国文化收录的《英祖时期水产品和税收的地区性特征》为原文的这份资料。

本论文尝试将『輿地圖書』中收录的全各地的物产、进贡、均税等与水产业相关的税收记载事项相互联系进行分析,研究海税在全国范围内的征收情况和各地缴税负担的实际情况。

由此,可以了解当时的生产水平以及征税负担程度,从而进一步加深对国家税收制度现状的全面了解。

首先对史料做一个简要的说明。

『輿地圖書』是收集1757年英祖33年至英祖41年间制作的全国郡县邑志,向中央政府报告的综合资料,是展示18世纪中期地方社会实态的重要资料。

『輿地圖書』共55册,由包括监营和水营等在内的313个官方邑志组成。

『輿地圖書』中收录的全郡县条目约40多个,分别是:疆、坊里、道路、建置沿革、郡名、形胜、城池、官职、山川、姓氏、风俗、陵寝、坛庙、公廨、堤堰、仓库、物产、桥梁、驿院、牧场、关厄、烽燧、楼亭、寺刹、古迹、镇堡、人物、旱田、进贡、菜采、田税、大同、均税、俸廩、军兵等。

以上内容大致可分为四类。

首先,第一类是有关于地区自然环境的信息。

疆和道路是指划界,涉及区域位置;坊里记载了该地区包含的面(行政区划之一,在郡之下,里之上,相当于中国的乡)以及面的所在地,面的户籍信息,如住户数、男女的人口数量。

建置沿革和郡名是关于地区历史的,涉及三国时代延续下来的地区名称和地位的变化。

形胜是对地形的描述,例如对江华岛的描述是“四面环海,主山是松岳山,土壤肥沃”。

城池包含了以防御为目的而建造的内城、外城、山城以及水库的信息。





第二类是关于地区相关设施的信息。

陵寝是自古以来流传下来的国王或王后的坟墓，坛庙是共同祭祀的地方，公廨是国有建筑，古迹是指自古流传下来的遗迹。

寺庙、堤堰、仓库、桥梁、驿院、牧场可以按照单词字面上的意思去理解。

关厄是指比如江华岛甲串津等一些主要的水路和陆路的军事要冲，另外，楼亭是指楼阁，镇堡是镇营和堡垒的合称等等，主要是一些与军事相关的信息。

第三类是关于产业和税收的信息。

粟采是还谷的术语，田税、大同、均税、进贡、物产、旱田等包含了本地区的税收规模和农业生产的相关信息。

这是本次课中要涉及的最重要的一个类别。

第四类是其他俸廩是指有关管理官员薪俸的信息，军兵是有关关于兵力的组成和数量的信息。

人物是包括府尹和留守官等在内的地区著名人物名单，官职、山川、姓氏、风俗等可以按字面意思去理解。

现有研究对该史料进行如下评价。

『舆地图书』在『东国舆地胜览』的基础上，添加了包括户口在内的坊里、堤堰、道路、结钱、进贡、粟采、田税、大同、均税在内的赋税、军兵等条目，从这一点来看，与『世宗实录地理志』的形式相似，同时，从收录内容方面来看，『舆地图书』汇集了各地方邑志等资料，因此它很可能比『新增东国舆地胜览』更好地反映了城乡各地的本土物产特色。

同时，『舆地图书』是由中央政府主导编制，各地方邑志综合统计而成，因此其史料价值得到了高度评价。

特别是指出现有的『邑志』作为史料具有局限性，其撰述年代的不确定性、收录信息的证据资料不充分等，但『舆地图书』是特定时期中央政府收集的资料，所以可以明确地摆脱这种局限性。

换言之，这一点可谓是舆地图书区别于现有的『邑志』和『舆地图书』的地方。

另一方面，按地区分析『舆地图书』各条目时，也有批评意见指出该书的局限性，即每个地区的数据收集方法缺乏详细规定，作为全国统计资料缺乏了该有的一致性。





不过，针对『輿地圖書』的这种史料层面的局限性，在分析时可以通过缜密的解读和对照来弥补，如使用同时代的其他关联史料等。

最近关于『輿地圖書』的研究可以分为『輿地圖書』被用作解释特定地区的史料,或研究其内含的收录条目、亦或是针对条目对不同地区展开比较研究等等，本次课将利用『輿地圖書』来考察其中收录的特定领域，即以水产业相关内容为关键词整理的分析结果。

首先，在『輿地圖書』各地区“物产”部分收录的明细中，以与水产相关的部分作为统计数据来简单了解一下其概况。

作为参考，为了帮助理解，让我们以实际例子来看一下《輿地圖書》物产部分的记载方式。

曾在江都府志的江华岛，书中对其记载详情如下。

“石炭、青兰石皆出自摩尼山。洪鱼、白虾、生蛤、黄蛤、土花、石花、络蹄、苇鱼、小螺、秀鱼、中虾、竹蛤、真鱼、海贻、石首鱼、黄石首鱼、虾、青虾、川椒、柿、海艾、芝草、莞草、盐、蒲草、鲈鱼、民鱼、苏鱼、钱鱼、鲂鱼、鲤鱼、乌鳞鱼”

共列出34种江华岛的物产。

如表格所示，在『輿地圖書』的“物产”部分收录了京畿道在内的8个道的现状汇总。

『輿地圖書』中列出的物产总数为4,310种，其中水产品为1,938种，约占44.97%。

这里归类为水产品的物产指的是从海上生产出来的品种，还包括生/干鱼和冷冻鱼等加工产品。

作为参考，该表格是每个地区不分类型整理而成的物产数量的总和。

如表所示，从不同地区的全部物产的情况来看，庆尚道地区最多，共有851种物产，水产品方面，依次是咸镜道、庆尚道、忠清道、平安道。

按地区来看，水产品在全部物产中占比依次为京畿道、咸镜道、忠清道、黄海道。

另外，水产品种类的情况是咸镜道71种、全罗道61种、黄海道58种、忠清道和庆尚道各57种，各道平均生产56.3种。





其次,『輿地圖書』中收录的进贡条目与物产条目一样,也采取罗列的方式,汇总如图所示。

从各地区来看,江原道将26个对象地区中的17个地区列为进贡水产品的地区,水产品进贡的比率最高,为65.4%。其次是咸镜道、全罗道、黄海道、忠清道、庆尚道、平安道。

而在所有地区中,平均45.3%都是水产品进贡地区。

进贡的水产品按种类划分,咸镜道有21种,庆尚道有17种,分别纳贡了品种丰富的海产品,京畿道最少,只有花蟹1种。

另外,从水产品的加工度来看,进贡的品种分为生、干、盐、醃,各地区其数量如下,咸镜道(58种)、庆尚道(42种)、全罗道(34种)、江原道(31种)。

接下来是『輿地圖書』中的均税条目,它由田税、结钱、選武軍官布、海税鱼盐船藿税等构成。

按地区来看,咸镜道向23个对象地区中的19个地区征收海税,其比率最高,为82.6%,其次是黄海道、忠清道、京畿道,征收的海税的比率较高。

在全国范围内,全部地区中一半左右,51.4%是都是海税纳税地区。

据『輿地圖書』可知,海税的征收税额共计78,342.14两,其中全罗道为23,927.65两,庆尚道为20,261.65两,京畿道最低,为3,389.9两。

至此,我们已经掌握了『輿地圖書』中描述的各地区的海产品相关物产、进贡、海税的大致情况。

接下来,我们来看看朝鲜王朝后期水产和税收的地域特征。

据『輿地圖書』的条目记载内容,可以看出与水产相关的中央财政征税执行情况的一些特征。

首先,根据『輿地圖書』中的物产、海税、进贡资料,可以推测出当时渔业主产区的位置。

作为参考,分析时需要注意的一点是,记载了多种水产品并不意味着渔业总产量也高。

但是,如果某地区被列出的水产品种类丰富,那么可以由此推断该地区渔业相对发达,这种分析是可行的。

『輿地圖書』中水产品最多的地区是咸镜道北青,共有35种水产品记录在册。

全国296个地区中,有23个地区的水产品数量达到20种以上。





京畿道有仁川、安山、江华等4个地区，忠清道有泰安、舒川、瑞山等4个地区，庆尚道有东莱1个地区，江原道有江陵、杆城2个地区，咸镜道有北清、吉州、咸兴等10个地区，黄海道有海州、康翎2个地区，全罗道和平安道没有对应的地区。

作为参考，全罗道的灵光和现在的高兴，以前是兴阳各有18种，平安道的铁山有16种，是全罗道有记载的最多的地区。

然而，全罗道灵光却是海税纳税最多的地区，征收了2,823.3两。

在全部的296个地区中，有27个地区纳税超1000两。

京畿道：南阳1个地区、忠清道：洪州、备仁、瑞山3个地区；全罗道：灵岩、灵光、兴阳、扶安、沃沟、罗州、茂长、长兴、珍岛、康津、顺天11个地区；庆尚道：盈德、东莱、巨济、固城、熊川、迎日、长岐、金海8个地区，平安道有平壤1个地区，黄海道有翁津、康翎等2个地区。咸镜道没有对应的地区。

换句话说，咸镜道虽然列出了各种海产品，但没有在特定区域征收大量海税，而全罗道则相反。

从另一史料「均役厅事目」中记载的全罗道税额从高至低排序来看，古群山第一，狷岛第二，灵光、扶安、万顷第三，茂长、兴德、古阜、沃沟第四，光阳、顺天、罗岩、宝城、兴阳、康津第五，长兴、灵岩、海南、珍岛、务安、罗州、咸平第六。

该地区的海税约为21,838两，由此可知这些地区是渔业发展的基地。

在这些地区征收的海税约占全部海税的27%。

接下来，与水产相关的进贡物品最多的地区是咸镜道北青，共有28种水产品。

根据记载，在全部的296个地区中，进贡10种以上水产品的地区有33个。

全罗道有康津、灵岩、光阳、海南、长兴、兴阳、顺天、罗州、珍岛、乐安、宝城等11个地区，庆尚道有固城1个地区，江原道有江陵、通川、高城、三陟、蔚珍、杆城、襄阳、平海。咸镜道包括北青、兴原、灵兴、德源、吉州、明川、端川、仁城、安边、咸兴、文川、庆城、定平等13个地区。京畿道、忠清道没有对应的地区。

全罗道11个地区也都是「均役厅事目」选定的主要海税征收地区。





总之, 根据『輿地图书』的物产、海税、进贡等信息, 可以推测出全罗道灵光等地是当时渔业的主要产地。

第二, 輿地图书的物产条目还起到调查的作用, 即有利于朝鲜王朝掌握水产品受税对象的信息。

如表所示, 在『輿地图书』中, 负责进贡的地区的海税记载以及进贡水产品条目的记载均多于其他地区的平均水平, 这为推测輿地图书的物产条目发挥了掌握水产品受税情况的作用提供了依据。

从具体记载内容来看, 各地区水产品4.9 ~ 16.9种, 其中被要求进贡水产品相关物产的地区为8.76 ~ 19.5种, 未被要求进贡水产品相关物产的地区为0.26 ~ 9.5种。

换言之, 与未被要求进贡水产品的地区相比, 水产品进贡地区的水产品平均数量更多。海税的记载记录也是同理, 海税缴纳地区的进贡品种为8.5 ~ 19.2种, 海税纳税额较低的地区进贡品种为0.4 ~ 6.3种。

此外, 如果仔细查看全罗道的鱼盐船税详细记录, 可以更清晰地梳理出藿田、海衣田、苔田的海税纳税与相关物产条目之间的关系。

裙带菜、紫菜等定居性强的海藻类生长的特定海域被称作被称为藿田、苔田, 这里很早就建立并发展了所有权制度, 由此形成了与土地制度相似的所有权关系, 可以通过各种文字记录了解当时频繁的买卖交易的实际情况。

像这样, 在藿、海衣、苔生长的特定海域征收藿田税、海衣田税、苔田税的情况, 全罗道有8个地区, 共达758.5元。而且这些地区的物产条目中也包含了对相应物产的记载。

举例来说, 从表格中可以看出, 灵岩缴纳藿田税、苔田税、海衣田税, 水产品藿、甘苔、海衣等均记录在册。同样, 兴阳也缴纳藿田税、海衣田税, 藿、海衣作为水产品也被收录在物产条目中。罗州、长兴、珍岛、康津、海南等地也是如此。

当然也有一部分相反的情况。例如, 灵岩有14种水产品进贡品种, 其中有12件同时记载在物产条目中, 但海带、海参不在物产条目之列。我们可以从灵岩的藿田税缴纳记录中推测出海带很有可能是在灵岩产出的品种。换言之, 在物产条目中似乎遗漏了海带、海参的相关记录。





类似的情况还有康津。康津征收115两的藿田税，约占康津总海税1,497两的7.7%。但是，藿类中的早藿和粉藿作为该地区的进贡物产却没有被记录在『輿地图书』康津的物产条目中。

物产记录是否有遗漏可以通过查阅『輿地图书』前后时期编纂的地理志进行间接确认。如表所示，通过查阅『輿地图书』之前，约200年前编写的『新增东国輿地胜览』和『輿地图书』之后的『大东地志』，以灵岩和康津为对象进行对比，列出了两地分别记载在册的本土物产中水产品的品种。

在康津的进贡品种中，未被列为水产品的有5个品种，分别是鳎、藿、秀鱼、红蛤、多士麻。其中有4种是作为本土物产条目被记录在『新增东国輿地胜览』或者『大东地志』中。这意味着不同时期的全国地理志根据其编写目的和原始资料的不同，导致史料中对本土物产或者水产的记录条目出现了一些差异。

而且在现存的地理志中，本土物产类别在『輿地图书』中分为物产的记录和进贡条目的记录两部分，在此过程中，全国范围内没有统一的记载规则，所以推测是不是因为这一点所以才出现了物产品种漏记的情况。

接下来，虽然只是一小部分地区，但可以发现这些地方的物产、进贡和海税各条目之间存在着较弱的相关性。如表所示，『輿地图书』中记载了水产品 and 进贡条目，但未征收海税的地区占大部分，这些地区只有1~3种水产品 and 1~2种进贡品种。鱼类也是按地区来规定统一进贡特定鱼类。一般来说，全罗道和庆尚道是银口鱼，江原道是余项鱼，忠清道是石首鱼和秀鱼；除了石首鱼以外，都是栖息在淡水区的鱼类。

在朝鲜王朝后期的财政结构中，众所周知贡品和献品尤为不同，具有很强的拟制性，『輿地图书』的记载事项似乎也不例外。换言之，应向所有地区都征收贡品和献品，但根据地区的不同，明确地单独指定该地区普遍产出的一个品种作为进贡的物产品种，可以评价这种征收是一种名分论的形式。

虽然没有水产品 and 进贡品登记在册，却也有是海税受税地区的情况。忠清道的丹阳、堤川、沃川、燕岐等地区即是例子，但这些地区的海税征收额微不足道，为0.5~17两。





在同一资料中,有咸镜道对一艘小耳船至少征收1两,忠清道丹阳等地征收0.5两海税的记载,意味着丹阳等地征收的海税规模甚至都达不到其他地区一艘小船舶征收的金额。这也可以看作是形式主义的一个例子,形式主义在一些研究中被认为是朝鲜王朝财政运营的特征之一。

综上所述,上述部分物产、进贡、海税之间存在不均等的关系,但『輿地图书』中的物产条目仍起到调查的作用,有利于朝鲜王朝掌握水产品受税对象的信息。而且在『輿地图书』的征税记录中也可以看出存在征收0.5两的小税等形式主义。

第三,我们可以通过『輿地图书』中收录的水产品的进贡条目来考察朝鲜王朝水产品的加工程度和市场化程度。总结一下各地区的进贡情况,距离王都较近的京畿道和平安道进献贡品有1~3种水产,有蟹、民鱼、石鱼、蝦卵等,对加工的记载不明确。

此外,离王都较远地区的进贡品种类数量的从少到多排序是忠清道15种、黄海道21种、江原道31种、全罗道34种、庆尚道41种、咸镜道58种,各品种的平均加工产品数量的递增顺序是忠清道1.5种、黄海道1.9种、江原道2.1种、全罗道3.1种、庆尚道2.4种、咸镜道2.8种,呈现由中心向外缘展开,地区越偏远,加工程度越高的特征。

此外,还有一些在地区进贡条目中有记载但未列入物产条目的地区,它们似乎不是依靠本地区生产,而是依靠市场流通筹集进贡品,由此可以对水产品的加工和流通进行推测。我们来看一下具有代表性的全罗道的事例。

全罗道的贡品种类中有96项未列入物产条目,其中生鲍鱼5次、海参9次、贻贝7次、干大虾7次、干黄花鱼6次、紫菜类的一种水产品6次、干鲑鱼4次等。海参、贻贝、生鲍鱼是要在海底潜水专门采集的物产,一般是由被赋予如鲍作干等职业领域的人去采集,或者由村子通力合作才得以产出的代表性品种。

生鲍鱼在很早以前就被认为是珍贵的食材,人们认为该品种的流通结构是为了进贡而形成的。虽然对此还需要更仔细的研究,但鲍鱼、贻贝、海参这三种水产品曾被收录在『新增东国輿地胜览』的本土物产条目中,唯独『輿地图书』将其排除在物产条目之外,只记载在进贡条目里。康津、海南、顺天这三个地区就是代表性的地区。





对此分析可以有以下几种可能性——第一，尽管事实上该品种在当时该地区没有产出，但在形式上没有将其从进贡条目中删除，由此被包含在进贡条目之内；第二，已经形成了该品种的进贡筹集的流通渠道。最后，可能是单纯的漏记。

首先，『新增东国輿地胜览』是在各历史时期所收藏的供品的基础上编写的本土物产条目的资料，因此第一个假设是可能成立的。但康津、海南、顺天是著名的沿海地区，周边岛屿众多，因此判断不生产该品种的可能性非常低。

第二个假设即该物品在市场上形成了与贡品相关的流通结构，可以研究一下这些内容反应在『輿地图书』中的可能性。

实际上在『輿地图书』中与全罗道的鲍鱼相关的进贡条目丰富多样，有生鲍鱼，整只干鲍鱼，像削的苹果片儿一样薄而短的切片生鲍鱼、切片长形干鲍鱼，蒸鲍、蒸鲍鱼干、发酵形态的生鲍鱼鱼酱等等。然而，鲍鱼、贻贝和海参的市场化需要通过其他史料和研究得到更明确的佐证，本次课就是在致力于揭示这种可能性。

除此之外，干大虾、干黄花鱼、干秀鱼(干鲷鱼)等是为了便于水产品的长期流通加工而成的物品，据推测，当时这些物品的市场化程度高，不仅用于进贡，还用于买卖消费。

在收录了朝鲜王朝后期集市统计的『林园经济志』里集市总计1051场，据记载，有316场集市是关于经营品种的，包括鱼、盐在内的集市有247场，经营水产品占比约78.2%，这也为18~19世纪朝鲜的水产品市场化提供了支持。

至此，作为本次课的主题“从史料看朝鲜王朝后期水产业的实际情况”之下的小主题，我们不是以朝鲜王朝后期渔业的征税制度为着眼点，而是以生产的实际情况为中心进行了探讨。我来概括一下主要内容。

第一，通过『輿地图书』中的物产条目，提到了不同地区的水产品数量和主要的水产品种类，并与进贡条目、均税征收等其他记载事项进行了交叉对比。可知，最大的水产品和进贡的地区为咸镜道的北青，其中水产品35种，进贡品28种。最高海税的征收地区是全罗道灵光，海税额为2823.3两。





第二, 在确认了『輿地图书』中水产品与海税、进贡各条目之间的相关性的同时,也发现在某些地区,从均税缴纳实绩中推断出有漏记,或者物产、进贡和海税各条目之间记录不一致的情况。

但是,总体而言,『輿地图书』记载的信息依然有用且具有可信度,因为进贡产品通常包含在每个道的水产品中,而负责每个道的进贡事宜的监营(朝鲜时期道监司的办公衙门)的进贡物品被标记为各地区的进贡物品。此外,『輿地图书』的物产条目作为基础资料,为中央政府掌握各地区征收税额和收取物产的情况提供了支持。

第三,通过『輿地图书』中的记载的水产品和进贡品,可以知道水产品的加工得到相当大的发展。主要是盐制品、干制品、肉酱制品、冷冻制品等易于流通的形态。特别是像咸镜道北青这样的地区,越远离中央,进贡品的种类越丰富,各品种对应的加工程度越高。

本节课我们通过『輿地图书』了解了朝鲜后期水产业。下一节课我们将通过渔场买卖文记了解朝鲜后期水产业。





2-3

通过渔场买卖文记看朝鲜后期水产业

上一节课我们通过『舆地图书』了解了朝鲜后期水产业。本节课通过史料通过渔场买卖文记看一下朝鲜后期水产业,确认下当时渔场的私有产权和渔场交易是否存在,并考察其交易方式是以什么形态进行。

渔场的私占和买卖事例可以通过多种古文书进行确认。现有研究中,曾介绍过京畿道水原和黄海道瓮津郡等地渔场买卖时制作的文记。

在本节课中,将发掘现有研究中使用的渔场买卖文记和位于全罗北道兴德县心元面的渔场的买卖文记、黄海道瓮津郡松堂里箭浦箭、鹄堂箭、乌头箭、箭浦青鱼箭买卖文记等18世纪后期至19世纪后期的资料,分析当时的渔场买卖情况。分析中使用的有关渔场买卖的古文书整理见下表。

第一个文记是京畿道水原渔场买卖事例,是1786年制作的渔场买卖文记。我来读一下画面中的原文。

乾隆五十一年丙午十一月二十五日李海南宅奴莫金前明文

右明文事段上典宅切有用處水原佳士串面鷄頭山下浦邊陳江岩網場形止段鹽岩周四千五百餘步內一授二授兩庫合二百五機是遺四標段東距大同岩五里南西距猪岩五里西距黃岩二十里北距鷄頭峰五里庫乙價折錢文壹百伍拾兩依數交易捧上是遺

乾隆五十一年丙午十一月二十五日李海南宅奴莫金前明文

右明文事段上典宅切有用處水原佳士串面鷄頭山下浦邊陳江岩網場形止段鹽岩周四千五百餘步內一授二授兩庫合二百五機是遺四標段東距大同岩五里南西距猪岩五里西距黃岩二十里北距鷄頭峰五里庫乙價折錢文壹百伍拾兩依數交易捧上是遺

立旨一張上典主牌子導良右人前永永放賣成文以給爲去乎日後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立旨一張上典主牌子導良右人前永永放賣成文以給爲去乎日後或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網基主李生員宅金夢(左手寸)

証人私奴占尙(左手寸)





私奴卜善(左手寸)
私奴命山(左手寸)
筆執良人李燁(手決)

網基主李生員宅金夢(左手寸)
証人私奴占尙(左手寸)
私奴卜善(左手寸)
私奴命山(左手寸)
筆執良人李燁(手決)

该文记是在实施均役法后的1786年制作的渔场买卖文记。渔场所在地是京畿道水原,现所在地是京畿道平泽市玄德面权管里的一个渔场买卖时制作的。交易物品是设置渔网约250米大小的渔场,以150两铜钱、30石大米的价格出售。

这份文书特别明确了渔场位置的东西南北四边界限,以大同岩、猪岩、黄岩、鸡头峰等内陆地名为其基准。并与捕捞工具渔网一起划定的海域称为渔场,与以土地相同的形式进行买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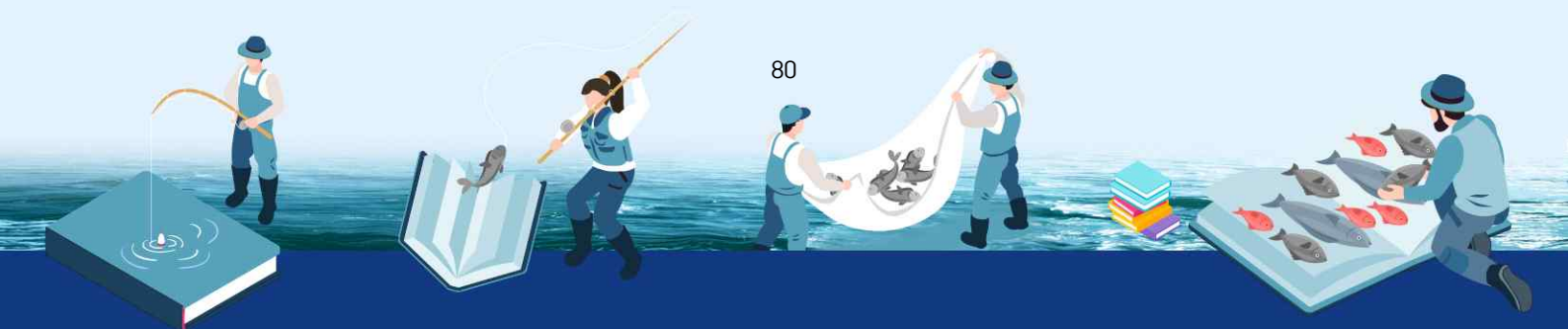
与此相关,水原府发放的文件--同一渔场的立案资料也存在。立案是朝鲜时代官府根据个人请愿发放的文件,根据个人请愿,官府确认买卖、转让、诉讼、立后等事实,并为了认证而发放的文件。

1786年制定的立案中收录了与渔场位置、大小等相关的渔场买卖文记相同的事项,这些都在1762年的记录事项相同。在立案中,渔箭主人是李生员家家奴世位。朝鲜后期买卖土地等时,即使原所有者是两班家,作为买卖当事人,原所有主的奴婢在交易惯例上也要形式上标记为契约者,这里也出现了这项特征。由此可知,至少1762年至1786年间,该渔场归属李生员家。

第二个全罗北道兴德县渔箭买卖事例。该文记是1826年、1828年、1839年制作的渔箭买卖文记。共3张文件,以下是对最后时期1839年制作的文书的原文和翻译。我们来看一下内容。

道光十九年己亥六月日李永仲前明文

右明文事段右人前買得是在心元面蘭勿後洋吉嚴滄伏在漁箭一庫看水船一隻抹五結折價錢文一百五十兩(本文記三丈并以新文記)還爲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相左之弊以此告官卞正事





道光十九年己亥六月日李永仲前明文

右明文事段右人前買得是在心元面蘭勿後洋吉嚴滄伏在漁箭一庫看水船一隻抹五結折價錢文一百五十兩(本文記三丈并以新文記)還爲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相左之弊以此告官卞正事

明文主陳寬性(手決)

筆證陳乃叟(手決)

明文主陳寬性(手決)

筆證陳乃叟(手決)

本漁箭買賣文記3件是位于全羅道興德縣心元面蘭湖里吉嚴滄的1826年至1839年的漁箭買賣記錄。1826年玄德一將漁箭權利轉讓給李廷珪, 1828年李廷珪轉讓給陳寬性, 1839年陳寬性轉讓給李永仲。

交易對象包括漁箭和1艘看水船, 還包括了抹木(木桩)等。一起被交易的看水船是觀看魚類聚集的船, 是主要在漁箭里使用的小船。抹木是支撐漁網的一種木桩, 是一種漁具。“抹”是指在漁箭起到支撐作用的木柱。

通過柱子顯示漁箭的面積, “結”就是表示漁箭大小的標準。朝鮮時代的“結”是反映農田面積的單位, 但這是反映生產力的概念, 不是絕對面積, 而是相對面積。從1902年起, 確定一結=1萬平方米=1公頃, 以此爲基礎換算, 相同漁場大小5結爲準, 折算約1.5萬坪。

漁箭的價格在1826年和1828年相同, 爲230兩, 但1839年反而下降到130兩。1826年和1828年的買賣理由是“債錢許多故不得已”即欠下的錢很多, 因此不得不出售, 由此可見, 漁箭和土地一樣, 在經濟困難時, 作爲可兌換性的財產, 成爲買賣的對象。

另外, 1826年和1828年的資料中稱“這是自己收購漁箭後自討苦吃”, 可以看出漁箭主還需要對漁場設置漁具等, 持續維持漁業投資。買賣文記中包括“將3張文記和新文記一起”, 採用粘連文記形式, 同時附有之前與該漁箭相關的3份文件。這意味着以前也有過漁場的買賣, 也可以推測出這個漁場像土地一樣維持着財產的價值。





另外,李永仲收购相同漁箭的文书中记载了其他文书中没有的文句“还为”,即将以前购买的东西返还出售。虽然无法在同份文书中确认,但在此次买卖之前,也有可能李永仲或李永仲家族拥有过该渔场。实际上,下面我们将要看到的黄海道瓮津郡的渔场,曾有过卖方第二年再次收购该渔场的事例。

三是黄海道瓮津郡漁箭买卖事例。黄海道瓮津郡的文记共有12件,根据渔场名称和销售品目的种类,文记分为4种。漁箭的名称被标记为箭浦箭、鵲堂箭、乌头殿、箭浦青魚箭等,通过文书很难确认它们是否是同一渔场。下图是黄海道瓮津郡的地理位置。

松堂里箭浦箭

乾隆三十六年辛卯四月二十七日崔光規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箭浦箭箭杖木二百五十介眞網十四幅網竹三介約是三介幕杖水望船一隻定伊船一隻等物折半及本文記六章官斜三章和會文記一章右人前價折錢文四百兩依數交易捧上永遠放賣爲乎矣某同生子孫中日後若有雜談則此文告官卞正者

乾隆三十六年辛卯四月二十七日崔光規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箭浦箭箭杖木二百五十介眞網十四幅網竹三介約是三介幕杖水望船一隻定伊船一隻等物折半及本文記六章官斜三章和會文記一章右人前價折錢文四百兩依數交易捧上永遠放賣爲乎矣某同生子孫中日後若有雜談則此文告官卞正者

箭主韓廷佑(手決)

證人韓臥孫(手決)

筆執幼學朴處演(手決)

箭主韓廷佑(手決)

證人韓臥孫(手決)

筆執幼學朴處演(手決)





本漁箭买卖文记时间是1771年，为目前所见最早时期的史料。位于黄海道龙渊面松堂里的箭浦箭作为交易对象,还包括作为捕捞工具的支架(网竹、箭杖木)、渔网、渔船等。同时还附上了兄弟之间分割财产的文书《和会文记》。作为参考,《和会文记》是死后兄弟之间分割财产的文件,与父母亲自作成的继承文书不同。

也就是说,推测这种漁箭从1771年以前就存在。从漁箭从祖先那里继承的事实来看,可以看出当时的漁箭在朝鲜后期被民众认为是财产。而且还包括官斜(官府盖的斜章),这意味着当时对渔业的所有权作为土地的延续,其财产权价值得到了官方的认可。

松堂里鵲堂箭

道光七年丁亥六月初四日韓震奎前明文

右明文事段祖先傳來是在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鵲堂箭三分二衿中折半衿價折錢文柒百兩依數捧上是遣杖網丁耳船水望船及柴浦雜魚箭半半衿并以右人前永遠放賣而本文段在於都文記故不得許給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若有雜言以此告官卞正事

道光七年丁亥六月初四日韓震奎前明文

右明文事段祖先傳來是在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鵲堂箭三分二衿中折半衿價折錢文柒百兩依數捧上是遣杖網丁耳船水望船及柴浦雜魚箭半半衿并以右人前永遠放賣而本文段在於都文記故不得許給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若有雜言以此告官卞正事

箭基金良鎰(手決)

從祖興哲(手決)

證筆孫繼祖(手決)

箭基金良鎰(手決)

從祖興哲(手決)

證筆孫繼祖(手決)

该文记是1827年制作的文记,是买卖从祖先那里继承的鵲堂箭的一部分即三分之一的股份和渔船的文件。和前面的松堂里箭浦箭一样,从祖先那里继承的漁箭就是交易对象。





记录从以前开始传下来的全部被继承人或个人的财产继承内容,从存在粘连的都文记来看,可以看出将渔箭以股份的形式分给多个子女。此外,黄海道地区的渔箭和渔船的1/3的买卖价为700两,与同时代京畿道、全罗道等地存在的其他渔箭相比,经济价值很高。

松堂里乌头箭

道光十六年丙申十一月初九日張吉甲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烏頭箭三分一衿價折錢文肆百伍拾兩依數捧是遣杖網定耳船二隻水望船一隻及柴浦箭三分一衿舊文記陸張并以右人前永遠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雜談則持此卞正者

道光十六年丙申十一月初九日張吉甲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瓮津龍淵面松堂里伏在烏頭箭三分一衿價折錢文肆百伍拾兩依數捧是遣杖網定耳船二隻水望船一隻及柴浦箭三分一衿舊文記陸張并以右人前永遠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雜談則持此卞正者

自筆箭主吳鼎允(手決)

自筆箭主吳鼎允(手決)

此份文记是1832~1836年制作的渔箭买卖文记。共由5张文书组成,这是最后一份制成的文书。本文记之前写的5份文记只有买方、卖方、买卖股份、买卖价格不同,其他内容和文书形式都相同。

主要内容已整理成你们现在看到的表格。该渔场在1832年和1833年进行了4次交易,1836年和1843年进行了1次交易,共进行了5次交易。首先,1832年5月,吴鼎允以铜钱各330两的价格向李宗杓和元益永出售1/6的股份,同年11月,李宗杓再次以铜钱400两的价格向元益永出售1/6的股份。最终吴鼎允的渔箭1/3股份归元益永所有。

在此过程中,李宗杓将渔箭1/6股份卖给元益永,获得70两的行情差价。但1833年元益永再次以730两的价格将渔箭1/3的股份出售给原来的主人吴鼎允。最终,吴鼎允在1832年5月以660两的价格出售了渔箭1/3的股份,1833年10月再次以730两的价格收购。





3年后的1836年, 吴鼎允以450两的价格向张吉甲出售漁箭1/3股份 °3年来, 漁箭的交易价格从730两下降到450两, 足足下降了280两 °可以说1833年至1836年间, 漁箭价值大幅下降 °

另一方面,有必要关注买方张吉甲的身份 °张吉甲出生于1804年, 1827年纯祖27年增广试丙科第47位 °拥有渔场的张吉甲是考取武科的两班出身的人物, 似乎并没有直接从事渔业 °

而且,与京畿道水原的买卖事例一样,形式上的奴婢作为买卖当事人记录的交易惯例不同,两班直接作为买卖者记录在册是其特点 °这反映了当时的人们对所有权的认识比以前有所提高,之前对财产的代录、虚录等惯行有越来越弱化的趋势 °

最后这张文记是1843年箭基主张相五以210两的价格向朴根培出售了1/6箭浦青魚箭的记录 °1843年文记上记载魚箭的前主人张相五是1836年收购者张吉甲的父亲 °1836年收购魚箭的人是儿子,但1843年买卖魚箭的半衿时,原主被记载为父亲,由此可以看出魚箭的实际所有者是父亲 °

这份魚箭买卖文记的事例特点是,在短时间内,部分魚箭被多次买卖,但最终原主吴鼎允在其买卖中作为买方和买方有着紧密的联系 °全罗道兴德县心元面兰湖里魚箭买卖文记中记载的“还为”与黄海道魚箭买卖事例一样,意味着魚箭是回购物,表现了当时短期内买卖者和收购者频繁买卖魚箭的惯例 °

黄海道瓮津郡松堂里箭浦青魚箭的1868年买卖文记也被多项先前研究所使用 °在本讲座中再次介绍该文记是因为同一份文记可以由前后制作的3件文记进行确认 °为了了解19世纪后半期魚箭买卖的实际情况,我们将共同进行分析 °

制作文记的时期是1861年、1866年、1868年、1870年,买卖对象是箭浦青魚箭 °共有4份文件, 1868年的资料收藏在奎章阁, 其余3份文件收藏在日本天里大学 °文书的格式与买卖对象及明细相同,以下是最早期的文书即1861年写成的文记原文和翻译 °其他文书的主要内容均整理在表格中 °

松堂里箭浦青魚箭

咸豐十一年辛酉八月二十日蔡參議宅奴金雲白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瓮津伏在松當里箭浦魚箭基三分一衿及幕家一座綿網仇佰把杖船一隻碇耳船一隻櫓一介水望船一隻杖壹佰參十介櫓一坐具鎖開金食鼎二坐水瓮二坐斗一介升一介刀子一介廣耳二介筥二介鉅一介漢所之二介足板一介斫貴二介搗臼一坐爐一坐錘一介價折錢文捌佰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舊文記二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族類中若有雜談則以此諸文券告官卞正事

咸豐十一年辛酉八月二十日蔡參議宅奴金雲白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瓮津伏在松當里箭浦魚箭基三分一衿及幕家一座綿網仇佰把杖船一隻碇耳船一隻櫓一介水望船一隻杖壹佰參十介櫓一坐具鎖開金食鼎二坐水瓮二坐斗一介升一介刀子一介廣耳二介筥二介鉅一介漢所之二介足板一介斫貴二介搗臼一坐爐一坐錘一介價折錢文捌佰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舊文記二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族類中若有雜談則以此諸文券告官卞正事

三分一衿箭基主盧之沆(手決)

訂人崔聖在(手決)

三分一衿箭基主盧之沆(手決)

訂立人崔聖在(手決)

这份文记记录了1861年、1866年、1868年箭浦青魚箭的1/3股份买卖3件、1870年2/3股份买卖等。第一份文记是1861年1/3股份由箭基主卢之沆以铜钱800两向金云白卖出包括魚箭和房子在内的生活用品的内容。

这里不仅包括魚箭的1/3股份,还包括船舶、船桨、棉网等捕捞所需的工具和房屋、饭锅、水罐、升子、刀等多种生活物品。这种物品交易在1866年和1868年一直延续下来,1870年生活物品用粗杂物一词简单记载,但推测交易物品与前面的文记相同。

魚箭的价格在1861年为800两,1866年为900两,1868年为1000两,7年间上涨了200两。但是1870年再次减少到750两的水平。19世纪中后期渔场价格呈下降趋势,这种生产危机也在渔场中有所反映,从渔场买卖文记中也可以看出当时经济环境正在恶化。

最后,综合渔场买卖文记的内容,我们一起来了解一下朝鲜后期渔场的私人所有权和特征。此前的1771年~1870年间,通过京畿道、全罗道、黄海道制作的16份魚箭买卖文记、1份立案,可以确认朝鲜后期魚箭被私占,作为财产的一部分被积极交易的过程。这可以概括为以下特点。





一是魚箭买卖文记的立约人是个人对个人,可见当时魚箭所有者主体为个人或持有部分股份。为了持有魚箭全部或部分股份,需要支付30~300石大米的高价。

实际上,可以判断当时作为下层居民身份的渔民,个人很难拥有设置了定置性渔具的魚箭。大体上,两班等作为财产的一环拥有魚箭,并由子孙继承,在均役法下,随着征收海税,渔场自由地成为私占的对象。通过分析文记可知魚箭所有者中有一人被确认是两班贵族身份。

第二,魚箭在短期内进行了多次买卖、收购,还发现了买方再次收购同一渔场的事例。甚至买方还把去年卖掉的同一个渔场重新买回来了。这意味着在沿海地区内频繁签订魚箭买卖合同是被允许的。而且作为买卖物品,还可以揣测出渔场具备变现的属性。

第三,魚箭作为财产的一环被继承,这意味着朝鲜后期魚箭也和土地一样被认为是财产的一部分。换句话说,再次确认了魚箭私人所有权的发展。

第四、魚箭购销文书填写方式与土地文书固有格式相同。可以说,这意味着当时魚箭的财产权价值作为土地的延续,也得到了认可。特别是买卖文件中包含了官斜(官府盖的斜章),买卖文件的末尾共同记载了“告官卞正事”、“告官从正”。

这是为了防止朝鲜时代土地、房屋等买卖时发生纠纷,从官府处获得交易公认所使用的的固有文句。即由此可见,魚箭买卖被官府赋予了与土地相同的被公认的权利。

五是魚箭、渔船、船桨、渔网等捕捞工具,以及生活用品也被列为交易物品。最后,魚箭交易时虽然整个魚箭可以作为买卖对象,但也有部分魚箭可以分割股份后再买卖。这意味着当时进行买卖的魚箭在法律上属于股权共享的对象,不是以村为单位的总有对象。

以上是第二堂课,我们以从朝鲜后期史料看朝鲜后期水产业的实际情况为主题进行了探讨。为此,将朝鲜后期编纂的史料《輿地圖書》和渔场买卖文记作为分析和说明的资料。综上所述,《輿地圖書》虽然不是针对水产品的特色资料,但通过《輿地圖書》收录的物产项目,可以确认18世纪各地区水产品生产的相关信息,结合均役海税的收税实绩,推测本地区渔业生产的部门,对当时渔业情况可以有大致了解。并且通过渔场买卖文记也对民间经济性渔场的私人所有体制的发展有所确认。





在之后的第三节课,我们将以“韩末的水产业和近代渔业法的引进”为主题进行授课。第二堂课就此结束。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조선 후기 어업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료에 대한 저자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자산어보(玆山魚譜) : 정약용
- ②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 김려
- ③ 전어지(佃漁志) : 서유구
- ④ 여지도서(輿地圖書) : 전국 군현 읍지

정답 ①

해설 《자산어보》는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 때 천주쟁이로 모함을 받아서 흑산도로 유배된 손암 정약전이 저작한 책으로, 절해고도 흑산도에서 섬 백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바다의 우리 물고기 226종의 정보들을 4종 55류로 분류해서 3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02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여지도서에 조적은 환곡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 ② 여지도서의 전세, 대동, 진공, 물산, 한전 등은 지역의 조세 규모 및 생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 ③ 여지도서에 수록된 수산물의 물산 항목을 통해 조선시대 수산물의 가공 정도와 시장화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여지도서에 수록된 최대 수산물산 및 진공의 기재지역은 함경도의 북청이다.

정답 ③

해설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역별 수산물 진상 목록을 분석하면, 수산물의 가공 정도가 상당 수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 진상 목록에는 염제품, 건제품, 젓갈류의 해(醃)제품, 얼린 동(凍)제품 등 유통에 용이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공 품목의 종류와 품목별 가공제품은 중앙으로부터 원거리일수록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물산은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물품으로 가공제품이 아닙니다.





03 어장 매매문기와 그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어장의 매매문기에는 어장의 위치를 동서남북 사방경계로 명시하고 있다.
- ② 전라도 흥덕현 심원면에 소재한 어장의 매매문기에서 어전을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을 지칭하는 용어는 말 5결이다.
- ③ 어장 매매 사유로 기재된 “채전허다고부득이(債錢許多故不得已)”는 빚진 돈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기록으로, 어전이 토지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울 때 환금성이 있는 매매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 ④ 어장 매매문기에 기재된 가격은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시 어장은 시세차익이 상당한 재산이었다.

정답 ④

해설 말(抹)은 어전에서 어망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목재기둥을 의미합니다. 이 기둥은 어전의 면적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장매매문기에 표기된 결(結)이 어전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참고로 결은 조선 시대 결은 농토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나, 생산성이 반영된 개념으로 절대 면적이 아닌 상대 면적입니다.

19세기 중 후반의 어장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로, 생산의 위기가 어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당시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은 어장매매 문기에서도 확인됩니다.





04 10분 어전 매매분서의 작성방식 중 토지의 고유한 매매문서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서, 조선 시대 토지, 가옥 등 매매시 분쟁 방지 차원에서 관으로부터 매매가 공인되었다는 것을 표기한 고유 문구는 ()이다.

정답 고관변정사(告官卞正事)

해설 고관변정사(告官卞正事)의 뜻은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으로 토지매매문서에서도 사용되는 상용문구입니다.

05 5분 조선시대 어장(어장)의 사적소유의 특질로서 맞는 것은?

- ① 조선후기 어장매매문기 분석을 통해 어장이 개인에게 사점되어 재산의 일부로 매매되고 있었으나, 이후 마을 구성원이 총유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조선후기 어장매매문기의 계약자의 특징은 대록이나 허록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③ 조선후기 어전의 매매는 지분을 분할하는 매매가 불가하였다.
- ④ 조선후기 어전의 매매시 매매물목에 어획에 필요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조선 후기 어장매매문기의 내용은 개인이 전체 또는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어장이 개인 또는 여러 명에 의해 사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경우 양반 대신 노비의 성명이 기재되는 대록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전 매매시 매매 물목에는 어획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조선 시대 지역별 어장 매매문기의 내용과 특징을 요약하고, 어장매매문기로부터 파악되는 어장의 사적소유의 특질을 서술하시오. (60분)

참고

1771~1870년간 경기도, 전라도, 황해도에서 작성된 어전 매매문기는 토지매매문기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 주체, 기재 사항, 매매 물목, 매매의 빈번도 등은 자료별로 상이합니다. 학생들은 개별 매매 자료의 정리를 통해 당시 어장매매 실태와 사적소유 실태의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경제성 있는 어장에 대한 민간의 사적 소유체제의 발달을 강의에서 제시한 사료(어장매매문기)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 송기태 외(2021), 갯벌의 어민생활과 어로활동, 해양수산부

“7. 서해안 고창지역 어살어업의 변화과정 고찰 / 송기태”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우연(2010),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1600-1987), 일조각

“제1장 조선시대의 산림소유제도”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